

제2345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케이뱅크 새 은행장에 이문환 사장 내정 8



손정의 3년 만에 트위터 "코로나 극복 기여" 21

코스피(1일) 1908.27 (-54.66P)
코스닥 595.61 (-24.36P)
환율(달러당 원화) 1193.00 (-0.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086% (+0.004%p)

변액보험 역성장 쇼크 펀드 순자산 5兆 증발

코로나19·주가폭락 '직격탄'
보험 해지 잇따라 적립금 감소
펀드 순자산 100兆 벽 깨질 듯
소비자·보험사 불안감 증폭



국내 변액보험 시장이 코로나19에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패닉에 빠졌다.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 이후 변액보험 자산 중 5조 원이 증발했다. 2019년 8월 이후 변액보험 총자산도 100조 원 선 붕괴를 앞두고 있어 생명보험사들의 고민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은 100조7428억 원을 기록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105조4271억 원) 대비 약 5조 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들어 105조 원에서 102조 원까지 빠지더니, 이달엔 100조 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이대로라면 100조 원 벽도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이는 2019년 8월 증시 악화로 99조 원으로 내려간 이후 7개월 만이다.

변액보험 순자산이 빠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주가가 하락해 변액보험 수익률도 함께 안 좋아졌거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해 계약자 적립금이 빠진 것이다. 작금의 시장 상황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1월 2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01%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같은 달 2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3%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급락하면서 변액보험 펀드 자산 손실 우려는 더

삼성 준법위, 이재용에 '경영권 승계' 사과 권고

'무노조 경영 폐기'도 주문...李부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나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강도 높은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먼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

회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선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

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행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스피 4년 만에 최저치 11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1900선을 내주며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24.36포인트(3.93%) 내린 595.61에 장을 끝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193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54.66포인트(2.78%) 내린 1908.27을 가리키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뉴시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

서울교통공사, 연구용역 보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올 초 서울시에 도시철도 요금 조정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와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코레일 등도 요금 인상 수요가 있는 만큼 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는 광역환승 요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역환승 요금구조는 '거리 비례제' 방식으로 장거리 승객이 오히려 더 적은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환승손실금 부담을 가중시킨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수요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2007년(800원→900원)과 2012년(900원→1050원), 2015년(1050원→1250원) 인상된 이후 5년째 동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만큼 (지금) 인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물가와 비교한 요금 인상 타당성, 적정 금액, 용역업체 선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것도 요금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제 개편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코로나에 '고용 한파'

일시휴직 14.2만 명 증가...기업 28% "상반기 채용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지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2월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등 3대 지표는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가까이 급증했고, 경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5면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6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2000명(29.8%)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앞당겨졌음에도 일시휴직이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시 휴직자는 예년에는 2월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높아졌다"고 말했다.

취업자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되고, 감소폭이 확대됐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등 외부 활동이 줄면서 서비스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이번 조사에서 고용시장이 견조한 회복 흐름세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이전에 조사돼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2월 고용동향은 지난달 9~15일 조사가 실시됐는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5일 28명에 불과했다가 29일엔 2931명까지 늘었다.

홍 총리는 특히 "3월 고용동향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하는 등 고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과 경기·고용 회복 모멘텀 되살리기

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75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63명(오후 5시)이다.

국외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대유행)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탈리아에서 1만149명(사망 631명), 이란에서 8042명(사망 29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스페인(1295명, 사망 2명) △프랑스(1784명, 사망 33명) △스페인(1639명, 사망 36명)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강력한 출입국 통제로 '원전 봉쇄'를 자부했던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959명, 사망자는 28명이 발생했다. 국외 상황은 국내 수출(제조업)과 외국인 관광객 추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27.8%가 올해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기사 2·3·4·6·10·13면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코오롱그룹

모듈형 음압병실 제작 무상 제공

SK하이닉스

5억 규모 구호활동 키트 지원

태광그룹

취약계층 아동에 마스크 전달

BMW그룹코리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억 기부

음압병실 기부·임대료 감면... 재계 '나눔·배려' 솔선수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재계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음압병실 무상 제공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건강관리용품 제공 등 '나누기'와 '배려하기' 등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듈형 음압치료병실을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24병상, 1개 동 규모의 모듈형 음압치료병실을 시공한다. 경북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설치한다.

모듈형 시설 건립 비용은 약 25억 원으로 전액 코오롱그룹이 부담한다. 서울대병원원은 모듈형 음압치료병실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의료장비 설치, 의료진 파견과 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구축해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문경의 인재원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은 5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와 무증상환자의 회복을 위한 생활치료



김현미(가운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이 SK하이닉스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구호 인력 1만 명에게 지원할 키트(Thank U KIT)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태광그룹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과 성금 기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및 마스크 전달 등 기부금과 물품을 포함해 총 8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3개월간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 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월 감면 한도 없이 70%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성, 흥국생명, 흥국화재, 티시스 등의 소유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일주학술문화재단도 재단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월 감면 한도 없이 30%를 인하해 준다. 감면 총액은 5억 원이다. 또 태광그룹은 3억 원을 공식 모금처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의료기자재 지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 물품 지원, 확진자·격리거주자들을 위한 물품지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경북, 경기, 충북 지역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 구호 인력 1만 명에게 5억 원 규모의 지원 키트('Thank U KIT')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마스크, 방호용 안경 및 장갑,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 물품과 비타민, 홍삼 등 건강관리 물품으로 이 키트를 만들었다. SK하이닉스는 구호키트를 사업장이 있는 이천과 청주 지역의 지역화폐로 구매한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이천, 청주 지역화폐 25억 원을 별도로 구입해 지역사회 지원 활동, 협력사 상생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해 위촉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로 했다.

BMW그룹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함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 원을 기부한다.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의료진의 방호복과 생필품, 의료용품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 구매에 사용된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박원순 서울시장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서울시, 지역 감염 확산 '배수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화두를 던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잠시 멈춤' 캠페인이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결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확대하고, 통신망 보안솔루션(SVPN)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VPN(Smart Seoul Virtual Private Network)'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SVPN은 500명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시청사를 폐쇄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1만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SVPN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재택근무제 참여를 확대한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전 직원의 90% 이상(186명)이 4일부터 교대형으로 참여해 재택근무 실행 모델을 마련 중이다.

부서별 실정에 맞춰 재택근무 참여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시청 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 디지털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도 재택근무를 확대 도입 중이다.

서울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화상회의도 늘린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종합 플랫폼인 '디지털시민시장실'이 활용된다. 디지털시민시장실에 민간의 화

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해 자치구정장 회의, 투자 출연기관장 회의 등 각종 회의에도 도입 예정이다.

부서, 팀 이하의 단위에는 행정 포털 메신저 화상회의,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이음' 협업시스템이나 민간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이 도입된다.

서울시가 주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은 종교계, 민간기업 등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후(3월 2-4일) 1월 대비 지하철 이용은 37.4%, 버스 이용은 32.5%, 자동차통행량(3월 2-3일)은 8.9%가 감소했다. 위기 단계 '심각'으로 격상한 2월 5주차(2월 24일~3월 1일)보다 줄어들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 것입니다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Do, whatever”... 글로벌 ‘코로나노믹스’ 공동전선

〈뒤든 다 하라〉

“Do, whatever.(뒤든 다 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실상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자 각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와 economic countermeasures의 합성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3000억 달러(약 358조 원) 규모 감세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사당에서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정례 오찬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급여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예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세 인하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집권 공화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감세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 보장이나 실업보험 연장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회와 대응책을

美 급여세 인하·EU 34兆 기금 日, 中企에 무이자·무담보 대출 中, 5G망 등 인프라 투자 확대 각국 과감한 경기 부양책 펼쳐 연준·ECB, 유동성 공급 확대 WB·IMF도 대응비 긴급 지원

놓고 불협화음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이 원활하게 펼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시켰다.

뉴욕증시가 대폭락한 전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예고했지만, 결국 내부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바람만 잡은 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동시다발적 충격에 휩싸인 유럽도 공조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긴급 영상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250억 유로(약 33조9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 의료시스템 강화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내 슈퍼 전파지가 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의 목소리가 컸다. 그는 “유로존 경제를 보호하기 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EU 정상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

해 ECB가 대담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뒤든 다 해달라(Do, whatever)”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역대 단결을 강조하며 사용했던 구호다.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약 4300억 엔(약 5조 원)을 풀 방침이

다. 호주 정부도 100억 호주달러(약 8조 원)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일찌감치 강도 높은 경기부양에 들어갔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5G 이동통신망 구축,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설 등 ‘신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윈난성이 44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허난성, 푸젠성, 쓰촨성, 충칭직할시, 산시성, 허베이성 등 7개 성급 지방정부도 올해 프로젝트 투자로 3조5000억 위안을 풀 예정이다. 홍콩 당국도 총 300억 홍콩달러(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20억 달러, 500억 달러를 코로나19 대응비로 지원한다.

각국 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초단기 유동성 공급분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ECB도 12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11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0.75%에서 0.2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김서영 기자 0jung2@

당정청 “추경 증액 검토”

“코로나 대응 부족, 목소리 반영”... 20兆 이상 전망 中企·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난기본소득은 ‘불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 등을 감당하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보다 더욱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재의 위기가 진정되기 어려워 보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추경 규모가 25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계에서는 훨씬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코로나19 추경을 “40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자금 애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은 일주일 후인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대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낙연(오른쪽)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일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로 ‘퐁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감세를 막상 적용하려고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다”며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서서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당정청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안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기본소득제도는 기존 재정운용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이기에 추경을 통해 시작하기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ENERGY를 CHANGE하라

자연을 에너지로
건강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환경과 인류를 지키는
ENERGY CHANGE!
한국남동발전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전경〉

금융 콜센터에만 4만명... '분산근무·디지털 상담' 전환

감염 사각지대 콜센터 대책

서울 구로구 콜센터(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만 400여 곳의 콜센터, 전국적으로 700곳이 넘는 콜센터발 전국 집단감염 확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 안팎인 채로 뻘뻘하게 모여 앉아 하루 종일 전화상담을 해야 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콜센터 직원 최소 4만명 1~ '터질 것이 터졌다' = 최소 4만 명 이상의 콜센터 인력을 운영 중인 금융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문제가 급부상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콜센터 이원화와 대체사업장 마련, 디지털 상담체계 구축 등으로 집단 감염 사례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카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만2000명의 콜센터 인력을 운영 중이다. 카드사 콜센터는 대부분 외주(아웃소싱)다. 다만, 삼성카드와 BC카드는 각각 '삼성카드고객서비스'와 'H&C네트워크' 자회사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카드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콜센터 인

콜센터 전국 700곳, 서울 400곳 대체사업장 마련... AI 챗봇 활용

원 분리 근무와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또 AI(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업무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도 대규모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생명보험사 콜센터 인원은 1만4000명 이상이며 손해보험사 역시 생명보험사 업계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 중이다. 대형 보험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네 곳에서 여섯 곳 이상 콜센터 인원을 분리 운영해 집단 감염 방지에 나섰다.

다만, 보험사 콜센터는 위탁에 위탁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분리 근무와 재택근무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 신도림 콜센터 역시 2차 위탁 콜센터로 알려졌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보험사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확보'와 '방역·예방조치 협조' 등을 요청하는 등 관리를 당부했다. 시중은행 콜센터는 보험과 카드사보다 소규모다. 시중은행 전체 콜센터 직원은 35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분리근무와 대체사업장 확보 등을 완료했다.

◇홈쇼핑·이커머스 콜센터도 '비상' = 업종 특성상 콜센터 인력이 많은 홈쇼핑 및 이커머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홈쇼핑 업계는 마스크 착용과 수시 방역 외에도 일부 인원은 재택 근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GS홈쇼핑은 부천 송내센터와 부산센터로 이원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슈로 중동센터를 추가 마련해 기존 송내센터 인원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인원은 순차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롯데홈쇼핑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총 3곳의 콜센터에 6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일주일에 3회 방역을 하고, 4회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3회 이상 열체크를 통해 37.5도 이상은 출근을 금지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CJENM 오쇼핑은 이미 주거환경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재택을 희망하는 모든 직원들은 현재 재택근무 중이다. CJ오쇼핑은 직원에게 VPN과 인터넷 전화 설치를 위해 전담팀을 보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2일부터는 근무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도 시행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남주현 기자 jooh@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근로자 정부 지원 대책은 '그림의 떡'

재택 등 유연근무 여의치 않아 마스크 지원·용자 대상서 제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보협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에 소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일반노조연맹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콜센터지부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종사하는 콜센터 직원 대부분은 외주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 원청사 소속이 아니다"며 "원청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콜센터 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각자 알아서 몸의 이상이 느껴지면 무급으로 조퇴하고 집에 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콜센터 근무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쉴 틈 없이 말을 해야 하므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재택근무도 여의치 않다. 또 고객과의 정확한 대화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권장과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나선사업주

에 인건비 지원) 상향, 가족돌봄휴가(무급)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은 콜센터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많은 특고 근로자들은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소득 요건(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 388만 원 이하)을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특히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특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많은 특고 근로자(대리운전기사 12만 명 등)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가정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또 정부의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 개 추가 공급 지원에서 배탈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고 근로자에만 지급될 뿐이라며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1일 군자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객실 의자의 스프레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콜센터 집단감염 연결고리 미궁... 수도권 확산 비상

대중교통 통한 감염 규모 가늠 못해... 노래방·PC방 등 집중 관리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도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염 경로도 미궁인 데다 직원들이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 대규모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로 콜센터가 인구·유동인구가 몰린 구로구에 있고, 감염원과 유입 경로도 특정되지 않아 확진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직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에서도 거주하는 데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접촉자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여서 대규모 수도권 확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구로 콜센터의 감염 경로는 신천지와 연관성을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는 선후 관계와 전체 규모를 봐야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촉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게 타는 지하철이나 철도 또는 버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건 안다"며 "하지만 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누가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다 역학조사를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분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도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집단감염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한다면 제2의 신천지 같은 폭발적인 증폭 집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는 우선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험사업장에 예방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구로 콜센터와 같이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위한 조치로 재택근무, 유연 근무, 출퇴근 시간 및 점심 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관리·소독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업종으로는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구로 콜센터를 비롯해 산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신규 확진환자 감소세도 꺾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755명으로 전날보다 242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6일(518명)부터 10일(131명)까지 나흘 연속으로 감소하던 상황이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이해근 기자 pinov1973@

세종청사 잇단 확진에 방역작업 총력

일부 구내식당 임시폐쇄

11일(오후 5시 기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또 나왔다. 하루 새 4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청사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1명, 보건복지부 1명, 국가보훈처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해양수산부(해수부) 4명, 교육부 1명 등 총 9명이다.

전날 2명의 공무원(해수부 1명·대통령기록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도 못 가 4명의 공무원이 확진자로 추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세종청사 확진자 소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사무실 내부가 슬렁이고 있다"며 "감염을 막기 위해 눈치를 보더라도 며칠 연차휴가를 써야 하는 건 고민이 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세종청사관리본부를 비롯한 청사 소속 부처들은 여러 부처에서 코로나19 확진 공무원이 잇따라 나오자 방역작업에 더욱 비

상이 걸렸다.

특히 해수부는 전날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직원이 근무(어업자원정책관실)하고 있는 5동 4층 전체에 방역소독을 시행했고, 4층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을 귀가 조치시켰다.

해수부는 하루 뒤 어업자원정책관실 소속 공무원 3명이 확진자로 추가되자 같은 부서 직원 전원에게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며 출입 기자단에 확진 공무원들을 접촉한 기자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5동 구내식당은 임시폐쇄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수부와 인접 부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방역 소독이 이뤄졌다.

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연결된 통로를 폐쇄해온 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추가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본관 출입에 필요한 스피드게이트 안면인식(출입증 찍은 후 얼굴확인)을 안 하기로 했다. 감염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지 말고 통과하라는 것이다. 또 세종청사로 오가는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부처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40대 실업자 30.6% ↑ ... 노인 일자리 57만개 늘어

통계청 '2월 고용동향'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만2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호조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각각 60.0%, 66.3%였다. 2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1982년, 1989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률은 4.1%로 0.6%포인트(P) 내렸다.

단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의존도가 높은 도소매업은 취업자 감소 폭이 전월 9만5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됐고, 숙박·음식점업은 증가 폭이 8만6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둔화했다. 반면 운수·창고업의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 9만2000명에서 2월 9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순수한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음식점업은 몇 달 동안 증가했으나 2월 들어 외국인 관광객 급감의 영향으로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 감소세를 보였다"며 "외출 자제나 여행 자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

15~64세 고용률 66.3% '최고'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 확대 숙박·음식점업 증가 폭은 둔화 60세 이상 고용률 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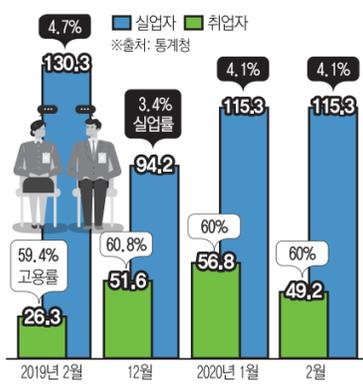
았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취업시간대별로 일시휴직자가 6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2000명(29.8%) 급증했다. 일시휴직자는 휴직 중이지만 직장 복귀가 확실하고, 그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취업자다. 이 기준을 넘으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쉬었음' 인구로 집계된다. 일시휴직자는 통상 설 연휴가 있는 달에 늘었다가 다음 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엔 연휴가 1월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34만7000명으로 19만1000명(8.8%) 늘었다. 40대에서 26만1000명으로 6만1000명(30.6%) 급증했다.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40대는 고용률도 77.8%로 0.5%P 하락했다. 기존 고용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반면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57만 명 늘고,

취업자 증가·실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3.0%P 올랐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서도 '나홀로 급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3월호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월 75포인트(P)에서 2월 65P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 같은 달보다)은 4.5%에서 1.8%로 꺾이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04.2P에서 96.9P로 내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민주당 '비례연합 합류' 전 당원 투표

"통합당 편법·반칙 응징 목적... 소수 정당에 앞번호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용 민주·진보 진영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약 80만 명의 권리당원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다. 전 당원 투표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비례연합 정당에 합류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일 24시간에 걸쳐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석을 독점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정당 구상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면서 탄력을 받았다. 스스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당내 일각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47석의 의석을 갖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확산됐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참여' 쪽으로 매듭을 지었다.

전 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과 공식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은 정의당, 민생당 등 소수정당이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 대표는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체온 측정하는 美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1단계 발열체크 현장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업일수·반도체 증가 영향 수출 증가

1~10일 수출 133억 달러 21.9% ↑ ... 일평균 수출액 2.5% ↓

3월 1~10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모래성'처럼 불안한 모양새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증가세라기보다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24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0%), 석유제품(30.6%), 승용차(11.8%), 무선통신기기(17.3%) 등이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선박(-63.2%), 액정디바이스(-12.9%) 등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0.4%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14.8%), 미국(45.4%), 베트남(27.2%), 일본(22.7%), 중동(51.0%)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조업일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1.5일 늘어났는데 따른 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영향이다. 올해 조업일수는 7.5일, 지난해는 삼일절(휴일) 등으로 6일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달 10일까지의 일평균 수출은 1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

억2000만 달러보다 2.5% 줄었다.

지난달 15개월 만에 수출 반등에 성공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2월 수출 플러스 전환 역시 지난해 2월 4~6일 설 연휴로 올해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는 영향이 컸다. 2월 한 달 전체 수출은 4.5%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11.7%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약진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2.0%라는 큰 폭의 상승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기가 흔들리는 것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해외 기업이 안정적 재고 확보를 위해 반도체·휴대폰 부품 등 주문량을 확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해외 완성품 제조사가 D램 단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을 미리 비축한 것이라면 최근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적 수요 감소가 반도체 수출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3~4월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똑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씁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중급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우디 이어 러도 증산 예고... '원유 치킨게임' 격화

러시아 “하루 30만 배럴...최대 50만 배럴 늘릴 수도”
美 셰일오일 전제 속도...내달 이후 재협상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러시아마저 원유 증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산유량을 단기적으로는 일일 20만~30만 배럴 더 늘릴 수 있으며, 향후에는 최대 일일 50만 배럴 증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우디의 증산 예고를 맞받아친 것이다. 앞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현재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인 산유량을 4월 123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에 이어 러시아까지 증산을 강행한다면 미국에 이어 세계 2·3위 산유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가뜰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양측의 증산 경쟁까지 현실화된다면 유가의 폭락은 물론, 글로벌 주식과 채권시장에도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전쟁은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감산 논의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OPEC 맹주인 사우디는 감산 확대를 주장했지만, 러시아가 반기를 들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자 사우디는 유가를 지지하러던 이전의 시도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싸움이 예견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유국들은 가격이 오를 때에는 결속이 쉽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입장 차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석유 카르텔 간 이해 대립이 표면화했다”

고 진단했다. 사우디는 현재 추진 중인 ‘탈(脫)석유 경제구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줄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금은 석유 판매 수입에서 나온다. 저유가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한편, 저유가 국면에 대비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증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러시아는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비교적 타격이 크지 않다. 하지만 추가 감산을 하게 되면 원유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감산에 나서지 않고 유가 하락을 감수하면서 미국 셰일유 업체를 견제하려는 속내도 있다. 채굴 기술이 향상됐다고 하더라도 셰일유는 여전히 기존 원유보다 생산 단가가 높다. 저유가가 형성되면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닛케이에는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적절한 재정자금이 러시아가 증산에 나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배럴당 25~30달러 수준의 저유가가 지속되더라도 향후 6~10년간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이 치킨게임을 그만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4월 이후로 OPEC 회원국 및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협정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더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실적 전망 줄하향...美 항공업계 ‘전전공공’

국내·국제선 운항 대폭 축소
급여 삭감·자사주 매입 중단...
비용절감 위한 비상 대응 돌입

미국 항공업계가 2001년 9·11 테러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이 매출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최고경영자(CEO)들은 급여를 반납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은 올 여름 성수기 국제선 운항을 현재보다 10% 줄이고 4월에는 국내선 운항도 7.5%를 축소할 예정이다. 미국 델타항공도 국제선은 20~25%, 국내선은 10~15% 축소한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신규 고용을 동결하는 한편 기존 직원들에게도 자발적 무급 휴가를 권



고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5억 달러(약 5900억6000만원)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도 늦출 계획이다. 또 일부 항공기의 조기 퇴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나이티드항공도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4월 한 달간 미국 국내선과 캐나다 노선 운항을 10% 줄인다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도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들 미국 3대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존에 내렸던 올해 실적 전망을 모두 철회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올해 1분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더 심각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스코트 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매출이 4월과 5월에 전년보다 70%, 6월에 60%, 7월과 8월에 40%, 9월과 10월에는 30% 11월과 12월에 2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키비 CEO는 “9·11이후 40% 수요가 감소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원진의 급여 반납 및 삭감도 이어지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의 키비 CEO는 6월 말까지 기본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개리 켈리 CEO도 직원들에게 자신의 급여를 10%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전 세계 항공사가 113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IATA는 지난달 21일 매출 손실을 300억 달러로 예상했다가 2주도 안 돼 피해 규모를 3배 이상으로 수정해 이번 사태가 글로벌 항공업계에 얼마나 막대한 타격을 주는지 다시 상기시켰다.

김서영 기자 0jung2@



‘미니화요일’도 압승
바이든 승리 굳혔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부인 질 바이든의 박수를 받으면서 6개 주에서 실시된 ‘미니 화요일’ 경선 승리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주 14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에 10개 주를 싹쓸이한 데 이어 이날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 등 최소 4개 주에서 베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꺾고 1위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의 정면 승부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필라델피아/로이터연합뉴스

“도쿄올림픽 무산 땀 2년 연기가 최선”

집행위원 “내달 논의 시작”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 7월 올림픽 개최가 어려워지면 1~2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카하시 하루유키 일본 도쿄올림픽·패

럴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차기 조직위원회 이사회까지 도쿄올림픽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얼마나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프로야구, 프로풋볼 혹은 유럽 축구 등 메이저 경기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이내 단기간 연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다카하시 위원은 설명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2년 늦춰진다면 2022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도쿄 하계올림픽, 하반기 카타르 월드컵 축구까지 잇따라 열리게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카하시 위원은 “다음 달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월가, 폐쇄 위기에 재택·분리근무 확대

은행직원 잇단 감염...대체 마련 부심
월마트 매장·애플 사무실서도 확진

전 세계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것이 실적과 주가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 사무실과 공장, 매장에 이르기까지 기업 일터가 코로나19 전염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월가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직원들이 감염돼 야에 월가가 폐쇄될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택근무와 분리 근무를 확대하고 예비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는 영업과 트레이딩 부문 직원을 각각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또 뉴욕 브루클린과 뉴저지,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이스스톡 등에 예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전날부터 채권과 증권 트레이딩 팀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 있는 예비 사무실로 보냈다.

도이체방크도 영국 런던에서 영업과 트레이딩 팀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근무시키고 있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더들을 재택근무 시킬 방침이다. 지난주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 런던 본사에 대규모 소독 작업을 해야 했던 HSBC도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 모두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팀별로 별도 근무를 할 것을 지시했다. 투자회사 블랙록은 이날 뉴욕 사무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재택근무를 시켰다면 해당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도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일터에 미치는 위협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월마트는 이날 미국 켄터키주 신시안나 매장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며 긴급 휴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근무지 폐쇄, 격리 조치 등으로 일하지 못한 직원은 최대 2주간 급여를 평소대로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부여한다. 또 이들을 결근 처리하지 않는다. 월마트는 150만 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이날 아일랜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 사무실에서 환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유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당신의 따듯한 마음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병원문을 닫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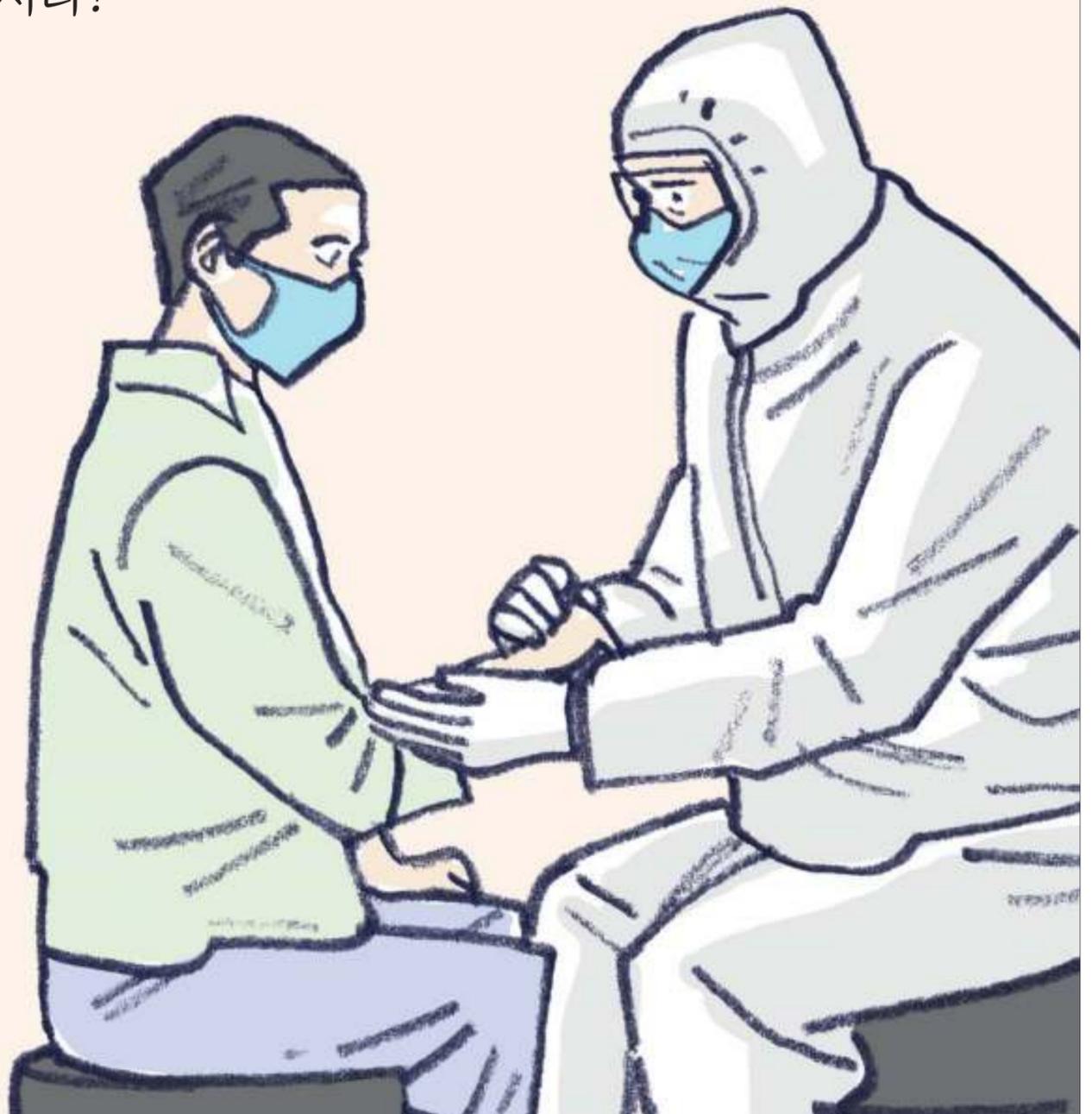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대한민국의 간호사

10kg이 넘는 장비를 이고 땀을 쏟는
대한민국의 방역진

밤잠을 줄여가며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힘을 냅시다!



(2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9.3兆 급증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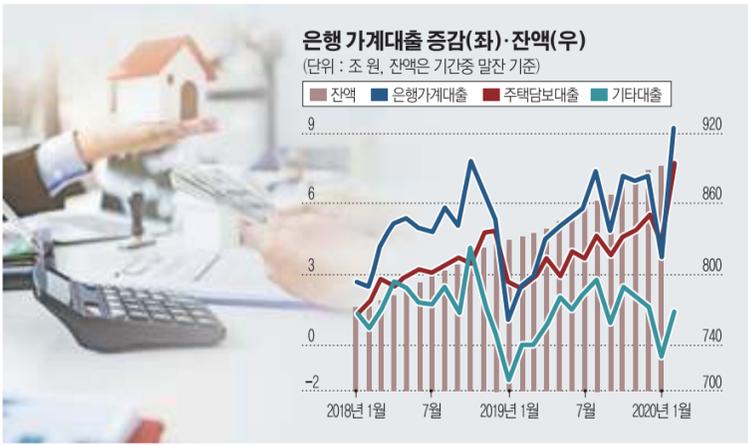
대출 잔액 900兆 첫 돌파

12·16 규제 시행 전 수요 몰려
주담대 증가폭 58개월 새 최대
제2 안심전환대출 대환도 한몫

은행 가계대출은 9조 원 넘게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잔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 가까이 늘어 4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4조 원 가까이 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선수가 있었던 데다, 제2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비은행대출 수요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901조



3000억 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 선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폭도 9조3000억 원에 달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2015년 10월 기록한 9조 원 증가였다.

부문별로 보면 주담대는 7조8000억 원 증가한 66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2015년 4월

(8조 원) 이후 최대폭이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이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월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제2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대환분은 1조 원이었다.

일반신용대출과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5000억 원 늘어난 234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설 관련 결

제자금과 일부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겹쳤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편,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2000억 원 증가한 34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2월 증가폭으로는 2018년(2조4000억 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일부 부동산 매매 관련 대출이 포함됐을 것으로 봤다.

윤육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담대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전세자금대출과 제2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대환분이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규제 시행이 올 1월 20일부터였다. 규제 강화 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주택시장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2월은 이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3월은 12·16 대책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케이뱅크 신임 은행장에 이문환 BC카드 사장 내정

케이뱅크는 회장 최종 후보로 이문환<사진> BC카드 사장이 내정됐다.

케이뱅크는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은행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2인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지난달 말부터 후보 선임 작업에 본격 착수해 이날 이문환 BC카드 사장을 케이뱅크 신임 은행장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31일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1989년 KT에 입사해 신사업 개발담당, 경영기획 부부장, 기업사업 부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부터 2년여간 BC카드를 이끌었다.

그는 BC카드 사장 취임 직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다. 그 결과 올해 초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북' 가입자가 800만 명에 이르면서 재임기간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FIDO(생체인증 국제표준규격) 기반의 자체 안면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같은 해 국내 카드사 최초로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임추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금융ICT 융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략과 독심 경영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경영자로 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곽찬산 기자 jinsan@

국민·농협銀 '코로나 신속 대응' 팔 걷었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 최우선 심사
금융 컨설팅·긴급 자금 지원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담 지원반과 위원회 등을 신설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11일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대출 심사 신속지원반'과 '현장지원반'을 신설했다.

심사 신속지원반은 서울 본점과 부천, 남동공단(경인), 판교, 수원(경기), 대전



장미경(가운데) NH농협은행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 위원장이 11일 회의에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대전·충청),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경남), 광주(호남) 등 총 9곳에 신설 운영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전담심사역을 배정해 최우선 심사하고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내에 설치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상담직원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하게 금융지원이 실행될 수 있

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은행 전국 13개 KB 소호 컨설팅센터에서는 정책자금 상담 등 금융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속한 금융지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본부에 설치했다. 장미경 여신심사부팀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매일 점검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0. 03 VOL.03

나이가 무서운 건
왜일까?
영양 부실은 건강
'호르몬'이 사라지면
얼마나 슬프고 나이들어
조용히 사라진다

정신 50년 기념
주요기사
신원 이만도

장수 설계가 알려주는
유망한 장수여행

"인생이 즐거울수록
좋은 사람과 함께하세요"
익숙하고 편안한
국민가수 김상희

슈퍼히어로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준다

하루살이 물려받았다

Noble House

COVERSTORY 하우스의 품격을 짓다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스를 둘러본다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 부담 "납부러!"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천천히 사무리까지 살아볼까?"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더불어 숲
다산은 시를 짓고,
초익은 그림을 그렸다

고수열전
'약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해 작가 권성철(1937~2007) 선생께겐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쇠뜨기물이나 강아지 통조림 그 어떤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깊었던 어느 여름날, 발걸음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

Living & Home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및 아이템

세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떤지 워드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종종 솟는다. 따뜻한 불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직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주택은 관심인데, 상가는 '덜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못지않게 핫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평생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홍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채용 가뭄에 단비...SK이노·포스코, 신입 뽑는다

SK, 챗봇·화상면접 시스템 도입
포스코, 오프라인 대신 소셜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진행'
롯데그룹 6일부터 서류전형 시작

포스코그룹과 SK이노베이션이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를 접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11일 2020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모집하는 계열사

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4개사다. 올해 서류 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주일 연장해 3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부터 더 많은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점 하한선을 4.5만점 기준 3.0점에서 2.8점으로 낮췄다. 또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실제 경험 위주로 서류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입사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했던 현장 설명회 등 오프라인 채용 활동을 전면 취소했다. 대신 자체 보유한 SNS 채널을 통해 더욱 면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스코는 공식 유튜브채널인 포스코TV를 통해 지난달 신입사원들의 포항 포스코 인재창조원 연수 생활을 담은 '포스코 신입사원 포항 브이로그(V-log)'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에는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영상도 게재할 예정이다. 포스코 채용 담당자는 "경영여건이 불확실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스코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화상면접, 챗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채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원자가 면접장으로 찾아와 대면해 진행하는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는 자택 등에서 노트북, 데스크톱 등 IT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화상면접 프로그램에 접속해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이 화상면접을 도입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개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채용 업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의 각종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Chat Bot)'을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처음으로 도입한 데 이어 이번 화상면접 시스템에 챗봇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상호 SK이노베이션 인재개발실장은 "집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6일부터 상반기 신입 채용 서류전형을 시작했다. 모집부문은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제조, 금융 부문 주요 계열사 대상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CES 2020 TV 최고상 LG 올레드AI 씽큐 출시

280만원부터... 벽에 완전 밀착

LG전자는 국내에 LG 2020년형 올레드 AI 씽큐(모델명 ThinQ 77/65/55CX)를 먼저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올 초 CES 2020에서 TV 부문 '최고상(The 2020 Best of CES Awards)'을 받은 제품이다. LG전자는 이날 65·55형 신제품을 국내에 먼저 출시한 후 내달 77형까지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달 말부터는 미국에서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외부 장치 없이 화면, 구동부, 스피커, 벽걸이 부품 등을 모두 내장했다. 기존 벽걸이형과 달리 TV 전체를 벽에 밀착시켜 몰입감과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 LG전자는 '월페이퍼(Wallpaper)'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모델명 65WX)도 내달 출시한다. 이 제품은 두께가 4mm에 불과해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LG 올레드 AI ThinQ(65/55CX) 출하는 각각 500만 원, 280만 원이다. 이달 말부터 출시하는 갤러리 디자인 적용 신제품(모델명: 77/65/55GX)의 출하는 각각 1250만 원, 560만 원, 310만 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BTS, 갤럭시S20 들었네 삼성 온라인 마케팅 사활

글로벌 밀레니얼 공략 협업
코로나 여파 체험공간 축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BTS(방탄소년단)와 협업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홍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1일 BTS를 모델로 한 17초 분량의 갤럭시S20 광고 영상을 선보였다. 트위터 '삼성모바일' 공식 계정을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삼성전자 계정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영상은 BTS 멤버들이 무대 뒤에서 갤럭시S20으로 셀피를 촬영하는 모습을 담았다. 촬영장을 배경으로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BTS 전 멤버가 각각 다양한 표정으로 셀피를 찍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BTS와 다양한 분야에

서 협업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BTS의 두터운 팬층과 젊은 이미지를 활용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4일엔 BTS 멤버 RM이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들고 있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BTS는 지난달 21일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주 이 앨범으로 네 번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주도 차트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2주 연속 메인 앨범 차트 톱3에 올랐다. 6일부터 갤럭시S20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BTS와의 협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체험 마케팅보다 온라인 마케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모바일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한 BTS의 갤럭시S20 광고 영상.

삼성전자는 체험형 마케팅인 '갤럭시 스튜디오'를 대폭 축소하고 대면접촉을 피하는 '언택트(Untact)' 마케팅을 시작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BTS와 협업해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 다양한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갤럭시 S20은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와 인공지능(AI)을 결합했다. 갤럭시S20은 총 3종으로 △1억800만 화소 카메라와 6.9형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갤럭시 S20 울트라' △6400만 화소 카메라와 각각 6.7형, 6.2형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갤럭시 20플러스', '갤럭시S20'이다. 송영록 기자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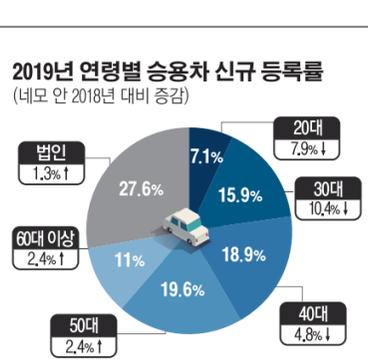
플체인지 '올 뉴 아반떼'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준중형 세단 '올 뉴 아반떼'의 티저 이미지를 11일 공개했다.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한 7세대 모델이다. '올 뉴 아반떼'에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로 장착되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AVN(Audio, Video, Navigation)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감싸는 듯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준중형 세단 '올 뉴 아반떼'의 티저 이미지를 11일 공개했다.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한 7세대 모델이다. '올 뉴 아반떼'에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로 장착되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AVN(Audio, Video, Navigation)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감싸는 듯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2019년 연령별 승용차 신규 등록률



업계에는 장년·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구매 혜택도 등장했다. 최근 기아차는 만 60세 이상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과 경품을 제공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마케팅을 선보였다. 3월 중 모닝과 레이, K3, 니로 하이브리드, 스톨닉, 스포티지를 출고하는 만 60세 이상 고객에게 안전운전 지원금 목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80만 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5.7%를 차지한 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3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지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창욱 기자 woogi@

자동차 구매 '큰손'은 50대

5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가 자동차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차 구매가 꾸준히 늘자, 차 업계도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를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는 50대였다. 50대가 구매한 신차는 29만2784대로 전년 대비 2.4% 늘어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40대가 최대 신차 구매층이었는데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차 구매도 2018년 보다 무려 6.7% 늘어 전체의 11%를 기록

했다.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구매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은퇴를 맞이하거나 앞둔 베이비부세 세대라 다양한 신차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40대의 신차 구매는 모두 전년 대비 줄었다. 경기 부진과 인구의 점진적 감소, 카셰어링(차량 공유) 등 자동차 이용 방식이 다양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

동국제강 80억 규모 자사주 매입

동국제강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200만 주를 장내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매입 기간은 12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10일 종가 기준 1주당 4000원으로 따질 때 80억 원 규모다. 동국제강은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복직할 수 있을까...직장 잃을까 밤잠 설치요”

항공·여행업계 종사자 하소연



한숨 깊어가는 항공·여행업계 8개 항공사 직원 절반 휴직 상태 여행사 “올해 끝나” 1200곳 휴업 호텔도 “투숙객 없어...세계 걱정”

“한마디로 썩대밭이고 아비규환이다.” “몇몇 항공사들은 법정관리라 불가피할 것 같고, 1등 빼고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실업자 될까 밤잠을 설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여행업계 직원들이 실업공포에 휩싸여 있다. 당장은 ‘휴직’이라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복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항공사의 노선 중 80~90%가 운항이 중단되면서, 직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항공권 판매 등을 통한 수익은 제로에 가까운 반면 공항 사용료, 주기로 등 고정 비용이 끊임없이 지출되고 있어 우선 인건비라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A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이번 위기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때와 달리 무척 힘들다”면서 “항공업계의 외환위기라는 말이 역대 최악의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인턴 사원들은 아예 회사를 나가야 할 판이다. B 항공사 인턴 직원은 “인턴들은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근무했지만 일반 직원들의 복귀 여부도 불투명해져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미 퇴사한 인턴들도 있다”고 말했다.

C 항공사 직원은 “우리 국적사들이 선진국 항공사들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면서 “상반기 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몇몇 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하다. 한 대형항공사(FSC)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현금 장사다 보니 바로바로 자금 순환이 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띄우는데, 띄우지 못해도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나마 FSC는 자금 여력이 있어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LCC는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LCC 사례가 발생했다. 5일(현지 시간) 영국의 LCC 플라이비는 성명을 통

해 “모든 항공편이 이륙하지 못했고 티켓 거래는 즉시 중단한다”며 파산을 알렸다. 이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파산한 첫 항공사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전 세계 항공사가 최대 1130억 달러(약 134조 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1200여 곳에 달하는 회사들이 휴업 신고를 한 여행업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소규모 여행사 중에는 이미 도산한 곳들도 많다.

하나투어 직원은 “솔직히 올해(장사)는 이미 끝난 거 같다”면서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지인을 봤다는 사람은 최근 들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진관광 B 씨는 “여행업 25년 경력 중 최대 위기”라면서 “하루가 달리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도저히 점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호텔 관계자 C 씨는 “매일 생계의 목을 죄여오는 기분이 든다”면서 “여행사, 항공사가 무너지니 개인 투숙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은 코로나19 타격을 추후 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서비스업은 그게 불가능하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한영대 기자 yeongdai@

SULFATE(황산염)·함성색소·인공향
함성방부제·실리콘오일

5
無
첨가

내 아이 만큼은
깨끗하게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것 만큼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착한 성분만을 담은 오무오무로
건강한 반려생활을 시작하세요

Pure of Love.
omu omu
www.omuomu.co.kr

LG화학, 홍콩 판매법인 청산

23년 만에...中법인에 업무 넘겨

LG화학이 홍콩 현지에서 있는 판매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LG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LG Chem HK Ltd.’ 법인을 처분했다.

홍콩과 중국 광둥성 등 화남지역을 대상으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폴리카보네이트 등 석유화학 제품 중계무역을 담당해온 법인이다.

1996년 11월 650만 달러(당시 물가 기준 약 51억 원)를 투자해 세웠다. 법인 설립 23년 만에 청산한 셈이다. LG화학은 이 법인에서 유지 비용보다 청산 비용이 더 낮다고 판단했다. 이 법인에 속한 직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홍콩 법인이 맡았던 중계무역 업무는 중국 법인으로 넘길 예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홍콩에 판매법인을 따로 뒤서 얻는 이득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며 “청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경제적 입지가 약화된 것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세지면서 홍콩에 법인을 따로 운영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1997년 중국 무역 규모의 약 절반은 홍콩을 통했지만,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홍콩의 입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홍콩을 통한 중국의 무역 규모는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97년 홍콩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약 5분의 1, 1인 기준으로는 35배가 넘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홍콩 경제 규모는 중국의 30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와 맞물려 홍콩 판매법인의 규모는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자산은 2016년 1089억7000만 원에서 2017년 967억5200만 원, 2018년 178억 8400만 원에 이어 작년 3분기에는 79억 7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매출액은 2016년 4936억8200만 원, 2017년 4876억3600만 원, 2018년 328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매출이 없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멜라토닌 조절’ 조명 낮엔 각성, 밤엔 꿀잠 도와

삼성전자가 멜라토닌 조절을 돕는 ‘LED 패키지’를 11일 출시했다. 수면 주기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조절을 도와 사람의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일반 조명, 디스플레이, 전장, 식물 성장 분야에 이어 ‘인간 중심 조명(Human Centric Lighting)’ 시장까지 공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LED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LM302N’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록색 파장의 빛을 조절한 제품이다. ‘LM302N DAY’와 ‘LM302N NITE’(사진) 2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에 관여하는 물질

이다. ‘LM302N DAY’는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 LED 조명 대비 멜라토닌 수치가 약 18% 감소돼 학교, 사무실, 산업현장 등에서 학습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M302N NITE’는 조명에 의한 각성 효과를 최소화했다. ‘LM302N NITE’는 멜라토닌 수치를 일반 제품보다 약 5%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송영록 기자 sy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 의료진·공무원 여러분 당신이 모두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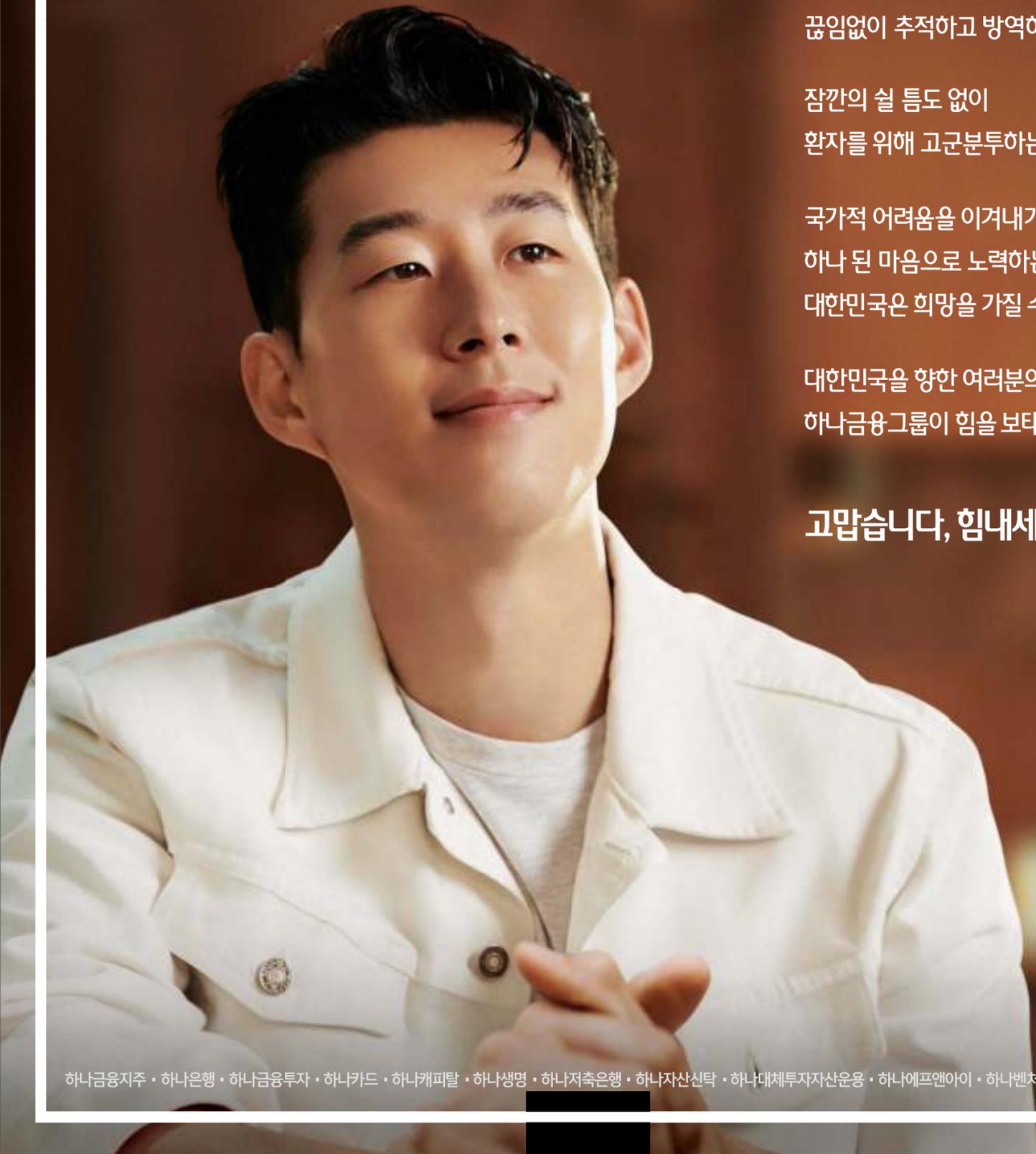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해
철야의 피로를 버텨내며
끊임없이 추적하고 방역하는 당신

잠간의 쉴 틈도 없이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신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금융그룹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넷마블·웹젠, 신작 동시 출격... 토종게임 자존심 살린다

게임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작 출시 일정에는 변함없는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넷마블과 웹젠은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장르와 게임방식을 채택한 신작을 각각 선보이며 상반기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과 웹젠은 각각 'A3 스틸얼라이브', '뮤 이그니션2'를 12일 동시 출시한다. 넷마블과 웹젠은 2015년 초 '레이븐'과 '뮤오리진'을 각각 출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해 시장 1, 2위를 다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넷마블이 선보이는 A3 스틸얼라이브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출시한 PC온라인 RPG 'A3'를 원작으로 하는 이 게임은 최초의 1인이 살아남는 배틀로얄 방식에 MMORPG 장르를 접목했다. 이외에도 동 시간 전체 서버의 이용자와 무차별 프리 대인전을 즐길 수 있는 '암흑출몰', 공격·방어·지원형 등 다양한 특색을 보유한 소환수의 진화 '소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모바일 첫 배틀로얄 MMORPG "상반기 최대 기대작" 관심 집중

울링커' 등 기존 모바일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A3 스틸얼라이브는 회사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게임이다. A3 스틸얼라이브를 처음 공개한 지스타 2018에서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진행된 A3 스틸얼라이브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퍼블리싱 역량을 집중시킨 상반기 최대 기대작"이라고 선언했다. 넷마블은 이날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하며 게임 출시 담금질에 나섰다.

웹젠은 PC웹게임 '뮤 이그니션2'를 출시한다. PC웹게임은 PC웹 브라우저를 통



웹젠 '뮤 이그니션2'.

웹젠 '뮤 이그니션2' 별도 설치 필요없는 PC웹게임 전작 대비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

해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별도의 게임 설치 없이 인터넷 환경만 연결된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전작에 비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빠르게 게임 접속이 가능해졌다.

웹젠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PC웹게임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뮤 이그니션2 테스트 첫날에는 하나의 서버로 시작했지만, 테스트 마지막 날에는 서버를 8개로 늘린 정도로 이용자들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의 신작 출시가 게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최고매출 톱10에는 절반가량이 외국·중국산 게임일 정도로 토종 게임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PC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도 PC방 게임순위 10위권 중 국산 개발 게임은 5개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중국산이 난입하고, PC온라인 게임 시장은 외국 게임에 점유율이 몰린 상황에서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라며 "양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만큼 게임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T,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 진출

헬스케어사업부 분사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합작사 출범
기업가치 1000억... SKT, 지분 43.4% 확보해 2대 주주로

SK텔레콤은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선 ICT 역량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자사 내 관련 사업부를 분사, 헬스케어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인바이츠 헬스케어'에는 국내 헬스케어 업계에 다수 투자 경험을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사 '뉴레이크얼라이언스'가 대주주로 참여했다. 하나로의료재단, 서울과학기술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SCL헬스케어그룹도 함께할 예정이다.

예정된 기타 주주사의 참여가 완료되면 '인바이츠 헬스케어'의 기업가치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SK텔레콤은 이 중 43.4%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대표로 SK텔레

콤에서 헬스케어 유닛장을 지낸 김준연(52·사진) 씨를 선임했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고객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세상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ICT 기술을 통해 개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기관의 혁신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당뇨병 관리 플랫폼 '코치코치당뇨'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심혈관, 호흡기, 뇌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각종 만성질환의 관리를 돕는 개인용 종합 건강 관리 플랫폼을 속속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병원 등 각종 의료 기관의 운영혁신을 돕는 스마트 솔루션 출시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 기관 전용 클라우드 솔루션도 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관의 ICT 혁신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약 1억7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의료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올 3분기 중 현지에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파트너십을 이어받아,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김준연 인바이츠 헬스케어 대표는 "SK텔레콤의 첨단 ICT 역량을 의료 영역에 접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건강 증진과 함께 의료 기관의 혁신을 이끌어 내며 헬스케어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통3사 '알뜰폰 지원사격'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업체 콘텐츠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통신 데이터 확대 지원을 비롯한 5G망 도매대가 인하, 금융권과 결합한 알뜰폰 출시 등 이통 3사의 가격 출혈 경쟁으로 위축됐던 알뜰폰 업체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알뜰폰 서비스 SK세븐모바일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하나원큐' 제휴요금제(사진) 8종을 출시했다. 하나원큐는 지난해 KB국민은행이 론칭한 '리브엠' 알뜰폰 요금제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되는 금융통신 알뜰폰 서비스다. 하나원큐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 가지 후불 요금제이며, 프로모션 혜택은 해당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데이터 10GB와 소진 시 일 2GB(이후 3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선택 65.8' 기반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 100GB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15GB(소진 시 3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51' 기반 요금제는 매월 50GB의 기본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LTE 선택형 100분 10GB' 기반 요금제는 월 10GB의 추가데이터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영



SKT, SK텔링크 '하나원큐' 요금제에 미디어 콘텐츠 지원
KT, 자사망 이용 알뜰폰 고객에 1년간 무료 추가 데이터
LG U+, 아이즈비전 등 11개 업체에 온라인 판촉물 지원

제휴 요금제는 알뜰폰 고객이 하나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통신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보다 저렴하게 OTT 웨이브 및 음원서비스 플로(FLO)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 및 4대 연금 자동이체 시 월 2200원에, 모바일 banking 앱인 '하나원큐'로 월 1건 이상 이체 시 월 1100원, 주택청약 신규 발급 및 월 납입 등의 금융 제휴 서비스 이용 시 월 1100원 등 월 최대 4400원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 매월 최대 100GB의 추가 데이터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 양에 민감한

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온라인 판촉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알뜰폰은 스마텔, 아이즈비전, 여유텔레콤과 같은 중소 업체를 비롯해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인스코비 등 U+MVNO 파트너스 11개사로, 자회사는 제외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원받은 판촉물을 활용해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사 직원들에서 온라인 판촉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망 도매제과 대가를 인하여 8개 사업자가 5G 요금제를 출시했고, KB국민은행 리브엠까지 더해 총 9개 알뜰폰에 5G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중기부 통합콜센터 '코로나 비상'

"업무상 재택 어렵지만... 사태 확산되면 순환근무 검토"

콜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도 콜센터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통합콜센터는 조달 입찰을 통해 지정된 KTCS 업체에 외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 동구 신천동 무역회관건물 14층에 71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곳에서 근무한다. 중기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관계에 따

르면 콜센터 업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재 재택근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건물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증상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콜센터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대전 보건소에 방역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 격주나 격일 등 순환 근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도 콜센터 업무를 외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개인정보 업무를 다룬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조치다. 공영홈쇼핑 본사 직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중일, A조, B조로 구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 A조의 회사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B조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한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큐브빌딩에 입차해 있는데 콜센터 인력 47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한다. 다만 감염 우려로 콜센터를 빌딩 내에서 두 개로 운영하고 있다. 빌딩 건물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1·2 콜센터가 운영 중이다. 공영홈쇼핑은 12일부터 서울 성수동에 제3콜센터를 운영해 인력을 분산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공항·휴게소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없으면 고사 위기”

인천공항 사업자 간담회 예정
임대료 혜택 ‘소상공인 국한’
“평균 이용객 90% 줄었는데
규모 구분 의미 있다” 하소연
고속도로 업체들도 아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도, 외출도 꺼리면서 공항과 고속도로에 입점한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 분담을 위한 ‘임대료 감면’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업체들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차인만 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아닌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업을 직격탄을 맞은 입점 업체들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공항 내 입점한 식품·서비스 분야 사업자, 면세 사업자와 12~13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워홈 등 식품 분야 7개, 하나은행 등 은행, SK텔레콤 등 통신사(로밍서비스),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GS리테일 등 편의점 등 서비스 분야 18개,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사업자 7개 등 총 32개 업체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입점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두 번째다. 인천공항공사가 주도한 지난달 간담회에서 공사는 입점 업체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위생관

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면세사업자 측이 요구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입점 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임대료 감면 또는 한시적 인하, 영업 시간 조정 등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임대료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운영 시간 축소나 운영 중단 등 운영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는 이용객 수가 아무리 줄어도 운영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 측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만 명 안팎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이용객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 반토막 났고, 이달 9일에는 인천공항 개항 후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인 1만9716명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자 경영을 호소하는 업체도 있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2월 초에도 매출이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인건비,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출은 없고 비용만 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다만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점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만 국한된 정책대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공항에 입점할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애초에 중소기업, 소

상공인은 몇 개 안 된다. 대부분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생색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이 나갈 수 있는 나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항 이용객은 거의 없다시피한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공항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업체들 역시 임대료 문제에 불만을 나타내는 마친가지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195곳과 주유소 92곳을 대상으로 2~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게소 운영 사업자 사이에서는 감면이 아닌 유예를 제시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휴게소 운영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10월부터 임대료를 차레로 계속 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깐 미루는 것이라 코로나19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토, 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각각 325만6000대와 250만4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일평균 주말 통행량(437만5173대)보다 각각 26%, 43% 줄어든 수치다. 박미선 기자 only@



집에서 운동하세요

이마트는 이달 25일까지 바이크, 요가매트, 레깅스, 스쿼트 밴드, 푸시업 바 등 다양한 종류의 홈피트니스용품 할인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는 부드러운 페달링과 높은 공간 효율성을 지닌 '소리 엑스바이크 X10'을 기존 15만9000원에서 10% 할인한 14만3100원에 선보이고, 아디다스 스쿼트 밴드 3인 세트를 1만4200원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워너 패브릭 튜빙 세트를 각 9900원에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집콕족 증가... '온라인 과자' 불티

‘비대면 구매+소포장 대용량 패키지’ 시너지... 전년비 35%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콕족’ 증가로 온라인 비대면 구매가 폭증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과자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일변도였던 과자 시장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판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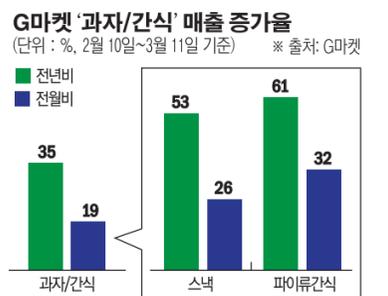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과자 판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싼, 다시 말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겨 오프라인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상품 중요도가 떨어지고 유사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가 큰 고민 없이 구매를 결정하는 ‘저관여제품’이라는 특성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판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최근 이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의 수익성 강화가 제조업체의 과제에 떠오른 시점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온라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2월 10일~3월 11일) 가공식품 내 ‘과자·간식’ 카테고리의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세부 범주로 보면 ‘스낵’은 전년 대비 53%, ‘파이류간식’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롯데제과 등 제조사의 온라인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각각 92%, 84%씩 크게 상승했다. 아직 온라인 매출 규모 자체는 작지만, 성장세만큼은 폭발적이라는 업계 설명이다.

G마켓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인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주로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야 하고, 불안감 때문에 단 과자나 스낵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제조사의 제품 구



성도 매출 증대에 한몫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날개 상품이 주로 판매되지만, 온라인의 경우 대용량 구매가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업계는 ‘소포장 대용량’ 패키지를 선보이며 ‘가성비’와 ‘취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온라인 패키지 형태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별로는 파이류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 영향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소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오리온의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는데 ‘초코파이’, ‘후레쉬베리’, ‘카스타드’ 등 파이류가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판매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맥주 등을 마실 때 가볍게 곁들이기 좋은 ‘촉촉한 초코칩’, ‘꼬북칩’, ‘포카칩’ 등 비스킷, 스낵류의 인기도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가 대비 부피가 큰 과자 특성상 온라인 판매 시 발생하는 물류비가 여전히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송비를 줄일 방법은 없다”면서 “신제품을 온라인으로 선출시키거나, 오프라인 제품과 차별화된 온라인 제품 개발 등으로 온라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백, 온라인몰 언택트 마케팅 강화

라이브 통해 건강가전 ‘완판’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도 라이브 방송 등 ‘언택트’가 대세로 떠올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5일 ‘정정 끝판왕’이라는 주제로 ‘공기청정기/스타일러’ 방송을 진행한 결과 평소 대비 9배의 고객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한 1억 원의 준비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자체 운영 온라인 쇼

핑몰인 ‘롯데프리미엄몰’을 통해 ‘롯데백화점 라이브’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TV홈쇼핑처럼 쇼호스트/인플루언서와 같은 진행자가 매일 12시, 15시에 백화점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채널이다.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고려해 롯데는 코로나19 이슈가 누그러질 때까지 자사 온라인몰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와 함께 상품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1일에는 ‘롯데백화점 라이브’를 통해

면역력 관리 상품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프리미엄몰에서는 15일까지 ‘집에서 즐기는 플렉스(FLEX)’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진행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필요한 공기청정기 등 가전상품들과 리빙용품을 할인 판매했다.

김명구롯데백화점 온라인사업부장은 “언택트 소비 활성화에 맞춰 관련 마케팅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쇼핑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여 고객들의 쇼핑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GS25, 스타벅스 캡슐커피 판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이달부터 편의점 업계 최초로 스타벅스 캡슐 커피를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GS25 측은 “스타벅스 커피 캡슐은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운영 조건이 까다롭지만, GS25는 점포 운영 상태 및 인프라가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 편의점 업계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집에서 카페 수준의 고퀄리티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 육아 중심의 생활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고 싶으나 여유가 없는 가정주부, 매년 카페 방문이 부담스러운 학생 등에게 이번에 판매하는 스타벅스 캡슐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GS25는 단순한 커피 판매에서 제



공 상품을 확대해 라이프스타일 커피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허쥬마·온트루잔트, 美 유방암 치료제 시장 정조준

K-바이오시밀러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 세력을 확장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나란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미국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와 '온트루잔트'가 상반기 내 미국 시장에 출격한다. 허셉틴은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다. 전 세계 매출은 약 8조 원 규모로 이 중 3조 원이 미국에서 발생한다.

미국 시장에 먼저 나오는 제품은 허쥬마다. 셀트리온의 북미지역 유통 파트너사 테바는 이달 중 허쥬마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쥬마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미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를 판매하고 있다. 허쥬마까지 출시하면 셀트리온은 대표 바이오시밀러 3종을 유럽에 이어 미국에 모두 출시한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렘시마는 2016년 11월 미국 시장에 나왔다. 출시 초반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 사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등재되면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제품	오리지널의약품	적응증	현황
셀트리온			
렘시마	레미케이드	자가면역질환	2016년 11월 출시
트룩시마	리툭산	항암제	2019년 11월 출시
허쥬마	허셉틴	항암제	2020년 3월 출시 예정
삼성바이오에피스			
렘플렉시스	레미케이드	자가면역질환	2017년 7월 출시
온트루잔트	허셉틴	항암제	2020년 상반기 출시 예정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 美 매출 3兆 세계 최대 시장 후발 진출 셀트리온·삼성에피스 '점유율 확대' 총력전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등장한 트룩시마는 더욱 순조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테바는 지난달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트룩시마가 12~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허쥬마도 미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은 24%로 나타났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매출 비중은 4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는 상반기 중 출시가 예상된다. 파트너사 MSD가

미국 내 판매를 맡는다. 2017년 7월 '렘플렉시스'에 이은 두 번째 미국 진출이다. 당시 렘플렉시스는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보다 35%가량 가격을 낮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두 제품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 '휴마리'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의 FDA 허가를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획득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SB8'도 FDA 심사에 들어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의 약 0.2% (2018년 기준 23만5000명)가 매년 유방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셉틴은 20년 동안 효과를 검증받으면서 유방암의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 오리지널 수의 10%만 확보해도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얀센·엘러간의 '칸진티'와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 화이자의 '트라지메라'가 미국에서 출시됐다. 칸진티는 출시 6개월 만에 트라스트루맵 시장의 12%를 차지했다. 허쥬마와 온트루잔트는 후발주자로서 점유율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3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먼저 출시돼 경쟁이 심화한 상태지만 양사의 실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美 출시 마지막 관문 통과

'세노바메이트' DEA 평가 완료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미국 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으로부터 '스케줄 V'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중추신경계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후 약품의 의학적 용도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노바메이트는 그중에서도 남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스케줄 V를 받았다. 등급에 따라 의약품 관리 수준이 결정된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DEA의 스케줄 평가를 끝으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출시를 위한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쳤다"면서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노바메이트의 빠른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FDA 시판 허가를 받은 약품이다. 마케팅과 판매는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직접 맡는다. 현재 미국 내 직접 판매를 위한 조직 구축 및 마케팅 계획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독자 개발한 신약이 FDA 판매 허가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로.

유혜은 기자 euna@

“바이오시밀러 퍼스트무버 되자” R&D 불 밝힌 기업들

알테오젠·이수앱지스 등 특허 만료 의약품 공략 가속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로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대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뛰어들며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7년 97억 달러(11조 원)에서 2023년 481억 달러(5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24.6%에 달한다. 전체 바이오 의약품 중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0.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 또는 희귀질환제 타깃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승부수를 걸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1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시가총액 1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정맥 주사용 의약품을 피하주사용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고분자 분해효소인간 히알

주요 바이오기업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현황

회사	바이오시밀러(오리지널)	타깃 질환
알테오젠	ALT-L9(아일리아)	황반변성
	ALT-LS2(허셉틴)	유방암 및 위암
이수앱지스	ISU305(솔라리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ISU106(옵디보)	면역항암
펩진	PG003(가텍스)	단장중후군
	PG001(삭센다)	비만, 당뇨
	PG002(포르테오)	중증 골다공증
팬젠	PDA10(이프렉스)	빈혈
	PGA40(진타)	혈우병
	PHA30(뉴트로진)	항암보조치료 및 호중구 감소증

루로니다제(ALT-B4)와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NexPTM과 항체-약물접합(ADC)의 원천기술인 NexMabTM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알테오젠은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T-LS2)와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

이수앱지스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바이오시밀러(에브서틴·파바갈·클로티넵)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ISU305)와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바이오시밀러(ISU106)를 개발 중이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ISU305는 오

리지널 비교 임상 1상을 마친 상태로 분석 단계에 들어갔으며 ISU106의 경우 자체 개발이 아닌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4조5000억 원 규모의 시장인 노보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삭센다' 바이오시밀러에 도전장을 낸 펩진도 주목된다.

삭센다는 강남 성형가에서 비만 치료제 1위를 기록하며 지금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펩진은 자체 개발한 펩타이드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융합 파트너 PG Tag(PG 태그)와 고수율 펩타이드 생산기술(HYPEP)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삭센다 바이오시밀러(PG001)와 더불어 중증골다공증 치료제 포르테오(PG002), 단장중후군 치료

제 가텍스(PG003)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그 밖에 팬젠도 CHO 세포(중국 햄스터 난소세포)에 특화된 단백질 발현기술(PanGen CHO-TECH)을 기반으로 빈혈치료제(PDA10) 바이오시밀러 '팬포틴'을 지난해 출시했으며 최초 할랄 인증 등 해외시장을 공략 중이다. 더불어 현재 혈우병치료제(PGA40), 항암 보조치료제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PHA30)의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시밀러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제품별 최초 론칭한 퍼스트 컴퍼니가 각광받는 특징이 있다"며 "빅 파마 오리지널 약 특화가 가장 많이 풀리는 시기인 2025년에는 5~10배로 커져 도전 기업들의 제품·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알테오젠의 기술수출 사례처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틈새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출중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유니셀랩·한국콜마, 원료의약품 개발 맞손

의약품 결정형 개발 전문회사인 유니셀랩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한국콜마와 손잡고 원료의약품의 새로운 결정형 연구를 시작한다.

양사는 최근 공동연구 및 사업화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

다. 유니셀랩은 새로운 '공 결정(cocryystal)' 형태의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 한국콜마는 이 원료의약품을 활용한 SGLT-2 계열 당뇨 개량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운 결정형의 원료는 한국콜마가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

2018년 9월 설립된 유니셀랩은 차별화된 의약품 결정형 디자인 및 제어방법 연구를 통해 신규 결정형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결정형이란 같은 분자들이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약물이 몸에서 녹는 정도나 약효 발현율,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업체는 다양한 결정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지훈 유니셀랩 대표는 "새로운 결정형 원료를 적용한 개량신약 개발 시 결정형 특허 전략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 결정 기술뿐만 아니라 결정다형, 염, 무정형 등 새로운 결정형 원료의약품 공동연구 및 제품화,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미약품 간질환 치료제 美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담관염 적응증에 이어 두 번째

한미약품이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LAPS Triple Agonist·HM15211)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에 추가 지정됐다.

한미약품은 미국 FDA가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원발담즙성담관염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5일 원발경화성담관염 치료 희귀약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GLP-1 수용체, 글루카곤 수용체 및 GIP 수용체의 동시 자극을 통한 다중 약리학적 효과가 있는 치료제다. 간 내 염증·섬유증 감소 및 담관의 자가면역적 파괴 역제를 통해 각종 자가면역 간질환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소·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가능성을 입증받았다"며 "대사성 질환과 항암뿐만 아니라 희소난치성 질환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좋은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희귀약 지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금까지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총 10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유혜은 기자 euna@

코스피 4년 만에 최저치... “반등까지 시간 걸릴 것”

장중 1900선 붕괴... 코스닥도 600선 무너져
 外人 6999억 순매도 시총 36조5849억 증발

코로나19 공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치면서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4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8%(54.66포인트) 하락하며 1908.27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6년 2월 17일(1883.94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장중 한때 19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는데 장중 코스피지수가 1900선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8월 6일 1891.8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급락하며 595.61포인트로 마감(-24.36P -3.93%)했다. 코스닥지수가 600선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해 8월 29일(599.57포인트)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하락으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36조5849억 원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8조8464억 원 증발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999억 원, 코스닥시장에서는 2606억 원을 순매도하며 2018년 2월 2일 2865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주식을 팔아치웠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58%(2500원) 빠지며 5만2100원으로 주저앉았고, SK하이닉스(-4.04%), 삼성바이오로직스(-2.53%), 네이버(-1.16%), LG화학(-2.28%)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



11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36포인트 내린 595.61에 마감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주식시세 전경판. 뉴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의 폭락이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본격적인 반등이 이뤄지려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될 필요가 있고 시급하게 정책적인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미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적완화에 대한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적인 심리가 작용했다”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정도로까지 해석하는 만큼 주요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뒷받침이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 만큼 투자에 더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최근 증시는 투자자에 대한 조언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안정되고 반등 구간에 들어가기까지 기간과 폭이 짧지 않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은 잠시 피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조언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가동 시 레벨다운의 충격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낮은 영역에서의 활동은 불가피하다”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여 정상화 국면의 진입시 가용 투자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공매도 제한... 진단키트주 날개 달까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 업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났다는 호재에, 이번 공매도 제한 조치로 공매도 우려가 상당수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 급등세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폭된 탓에,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중 코스피지수 1900선, 코스닥 600선이 무너지는 등 폭락장이 이어졌지만 진단키트 업체들 대부분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로 불리는 씨젠은 전일보다 7.86%(4300원) 오른 5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씨젠은 전일 연이은 상한가 고공행진 이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가가 13% 가까이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장 마감 이후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따른 첫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업체인 랩지노믹스(17.60%), 미코(미코바이오메드, 15.78%), 수젠텍(9.43%), EDGC(솔젠트, 7.01%) 진매트릭스(5.19%) 등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씨젠과 함께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진단키트 원료 공급사 파미셀도 3.94% 오르며 9500원으로 마감했다.

증권가는 당분간 진단키트 업체들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과열 국면에서 바이오 업체, 이 중에서도 진단키트 업체들의 공매도 거래량과 잔고 금액이 빠르게

수요 늘어나고 공매도 우려 해소
 대장주 씨젠 7.86% 오르며 반등
 단기 급등... 코로나 이후 고려를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씨젠의 경우 통상 천 단위에서 형성되던 공매도 거래량이 2월부터 빠르게 증가해 2일엔 65만 주를 넘었다. 공매도 잔고 금액도 2월 한 달 동안에만 415.5%가량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2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 ‘쇼트 포지션’을 커버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쇼트 커버링(공매도한 물량을 되사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차입형 공매도만 가능한 우리나라 규정상 거래 주체들이 일정 기간 이후엔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청산하는 투자자가 증가할 수 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쇼트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 급등세에 따른 고밸류에이

션은 부담 요인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주가 상승 재료들이 주가수익비율(PER) 등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씨젠의 12개월 선행 PER은 47배 수준.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 PER인 31배를 훨씬 웃돈다.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등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막 접어들었거나, 상장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 국면 이후 가시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진단시약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64개다. 이에 따른 사용 승인이 이어지면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의 판매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익 개선이 있는 업체가 아닌 경우,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자본잠식 탈출 넷게임즈, 한숨 돌렸지만...

실적 개선 과제로 남아

코스닥 상장사 넷게임즈가 모기업의 지원 속에 지난해 자본잠식 위기에 서 완전히 벗어났다. 다만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결손금이 쌓일 위기에 처해 실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넷게임즈는 지난해 상반기 자본잠식률 55.11%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 손실 누적이 따른 결손금 확대로 총 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 연말 모기업인 넥스코리아가 3차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운영자금 약 346억 원을 조달하면서 최종적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넷게임즈의 자본금은 144억 원, 총 자본은 3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감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앞서 거래소로부터 지정됐던 관리

넷게임즈 재무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2019년 이익잉여금(결손금)은 미확정)

매출액	256	224	236	28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103	-37	-108	-171
당기순이익	97	-31	-126	-171
이익잉여금(결손금)	33	2	-126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종목에서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넷게임즈는 2016년 영업이익 103억 원, 당기순이익 97억 원을 기록했지만 신작에 대한 투자 확대 속에 이듬해 적자전환했다. 이후 적자폭은 계속 커지는 상태다.

무엇보다 남아 있던 이익잉여금이 고갈돼 결손금으로 전환된 만큼 어느 때보다 실적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게임즈는 2018년 126억 원의 결손금을 기록했는데, 실적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에도 자본을 갠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문어발 확장 속 4년째 만성 적자

상장사 재무 분석

씨아이테크

작년 순손실 46억으로 확대
M&A 190억 썼지만 성과 없어
최대주주 잇단 자본금 확충에
재무안정성은 나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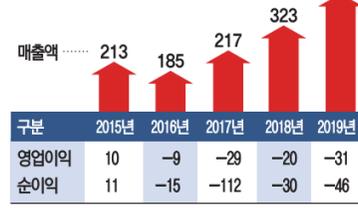
IT 전문기업 씨아이테크의 만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인수한 회사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손익 악화를 키우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아이테크는 지난해 연결기준 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커졌다. 매출은 407억 원으로 26.1% 늘었지만 순손실은 46억 원으로 확대됐다.

회사 측은 "지배회사의 매출 증가와 전년도 말 종속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매출이 반영돼 연결기준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지배

씨아이테크 연결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회사의 이익구조는 개선됐지만 일부 종속회사의 적자전환과 전년도 말 편입된 종속회사의 실적 악화가 반영돼 연결기준 손익은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씨아이테크는 1967년 설립된 삼영모방공업이 모태다. 2006년 삼영홀딩스로 사명을 바꿨고 2012년 두 차례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2015년 씨아이테크와 합병하면서 지금의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에스엔텍으로 2012년 위드윈의 특수관계인으로 3차배정 유증에 참여해 처음 지분을 취득했고, 위드윈이 반대매매로 지분을 상실하면서 2013년에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씨아이테크는 실적 부진의 해법을 M&A에서 찾았다. 2013년 10월 75억 원을 들여 RFID 기반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개발, 공급업체 나이콤 지분 100%를 취득했다. 나이콤은 2014년 이프랜드를, 이프랜드는 2015년에 셀런에스엔을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또 2016년에는 로드와이즈, 2017년에는 엠오디 등을 인수했다. 이렇

게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M&A 소요 자금만 190억 원에 육박했다.

회사가 원했던 대로 다수의 타 법인 인수는 연결 매출 규모를 늘렸지만 수익성까지 개선하지는 못했다. 씨아이테크 매출은 2012년 59억 원에서 2014년 100억 원을 넘어섰고 이후 200억 원 안팎을 오가다 2018년에 300억 원, 지난해 400억 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5년 단 한 차례(10억 원)를 제외하고 항상 적자였다. 특히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적자가 계속됐다. 씨아이테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도 남을 사유다.

그럼에도 씨아이테크의 재무 안정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최대주주가 수차례 자본금을 확충해준 영향이다. 만성 적자에다 2017년에는 100억 원을 웃도는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줄었음에도 부채비율은 80% 미만이고, 회사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동비율도 1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씨아이테크는 2월 에스비오토홀딩스 지분 50%를 25억 원에 취득하는 등 투자를 재개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웨이와 5대 5로 합작 설립한 기업으로, 제이웨이의 종속사인 정보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웨이는 앞서 씨아이테크가 이프랜드와 엠오디 등을 인수할 때 참여한 이력이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톱로스 매수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자동,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999-8245



범창 "유암코가 세하 무자본 M&A 시도"

"증권사도 참여 우회 인수" 주장
유암코·증권사는 "사실무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특정 임원이 대형 증권사를 활용해 세하 무자본 M&A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범창 측은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창은 최근 유암코와 증권사, 은행 등에 세하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창은 컨소시엄을 통해 세하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이다. 본지가 입수한 내용증명에는 유암코 임원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세하 지분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범창은 대형 증권사의 인수전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지 컨소시엄에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또 유암코 임원은 다른 투자자에

게 빌려온 자금을 자산운용사와 SPC 등을 통해 증권사에 넣는 방식으로 세하 지분을 우회 인수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배임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구주를 팔아 수익을 시현하는 구조인 만큼 소액주주의 피해도 우려된다. 범창은 유암코 등에 내용증명 회신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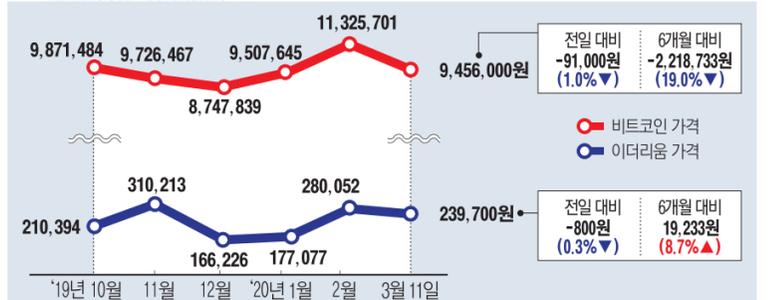
범창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사실상 무자본 M&A나 다름없는 행태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암코와 증권사는 범창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유암코 관계자는 "범창 측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며 "일단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답변은 할 예정이지만,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bithumb 빚썸

빗썸 지수 (2020년 3월 1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23,200	800 (0.2%▲)	모네로	65,900	-600 (0.9%▼)
리플	252	2 (0.8%▲)	비트코인골드	11,290	120 (1.1%▲)
라이트코인	59,250	-450 (0.8%▼)	이더리움 클래식	8,090	35 (0.4%▲)
대시	88,650	1,250 (1.4%▲)	퀀텀	2,333	33 (1.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보상 기준 없어 골머리

장위뉴타운, 교회 3곳과 갈등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난항 부산 초읍1구역, 사찰에 '발목' 전문가들 "법적 규정 마련해야"



재개발 단지 등 주택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을 두고 재개발 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종교시설이 보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주·철거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꿈꾸는 교회'에서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는 것) 강제집행에 나섰다. 장위4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때 승소로 조합은 꿈꾸는 교회 부지의 부동산 명의를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장위4구역과 꿈꾸는 교회 사이 갈등은 조합원 지위를 신청하지 않았던 교회가 돌연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교회는 조합원만큼 보상비를 쳐주고

교회 신축비와 재개발 아파트 보류지 등도 달라고 요구했다. 장위4구역 이주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상을 두고 버티는 교회는 '손톱 밑 가시'였다.

조합은 교회 부지의 감정평가액인 29억 원에서 웃돈을 얹어 40억 원가량을 제시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교회 측 요구를 합하면 100억 원에 이른다는데 조합 추산이다. 이번 강제집행으로 교회는 기존

감정평가액인 29억 원만 받고 장위4구역을 떠나게 됐다.

인근 장위10구역도 교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사랑제일교회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장위동교회 두 곳이 버티고 있다.

강경 보수 발언으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비로 536억 원을 부르고 있다. 교회를 크게 신축할 예정인 데다 재개발로 인한 신자 감소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근거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보상금은 82억 원이다.

장위10구역 조합도 사랑제일교회 요구가 과하다고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다. 조합은 애초 보상금보다 두 배 많은 40억~50억 원을 요구하는 제7 안식일 교회와도 줄다리기를 중이다.

장위10구역 조합 대의위원 김모 씨는 "장위 10구역 이주율이 90%가 넘는데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멈춰섰다"며 "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재개발 사업에 순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Y공인 관계자도

"장위 4·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인 역세권 구역"이라며 "교회 문제가 정리되면 장위뉴타운 대표 단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개발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 개신교뿐만 아니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1구역은 3년째 재개발 구역 남쪽에 있는 사찰인 '삼광사'와 줄다리를 하고 있다.

조합에선 삼광사 측에 재개발 이후 사찰을 새로 지을 부지로 약 4132㎡를 제안했다. 삼광사에선 제안을 거절하며 2만1487㎡를 요구했다. 구역 면적이 8만8211㎡인데 그 4분의 1을 대토(代土)로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게 조합 입장이다. 조합은 삼광사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명수 초읍1구역 조합장은 "사찰에서 무리한 요구를 던진 후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라도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교시설과 갈등을 빚는 재개발 사업장이 늘어나자 지자체도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을 둘러싼 갈등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다.

용역 발주에 앞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재개발에 따른 신도 감소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개발 이후 종교시설 신축비까지 보상해주는 건 과하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는 "현행 도시정비법엔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조합에선 일반토지 소유자 등에 준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며 "만약 종교시설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다. 그러면 종교시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도시정비법 등 구속력 있는 규정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인천·파주〉

검단·운정 LH공공택지 이달 나온다

3개 필지 총 14만1000㎡ 리스크 적어 매입 경쟁 치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잇따라 공급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집 지을 땅이 절실한 건설사들은 올해도 한정된 양의 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2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AB20-1 블록과 AB20-2 블록으로 각각 3만4000㎡, 7만4000㎡다. 이달 말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A7)에서 3만3000㎡ 규모의 아파트 용지도 내놓는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는 최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7년 LH 아파트 용지 매입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었지만 2018년 77대 1로 치열해졌고, 지난해엔 116대 1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나왔던 양주 회천지구 A22블록과 의왕 고천지구 용지는 경쟁률이 각각 151대 1, 229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도 연초부터 줄줄이 팔려나갔다. 4개 용지 모두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어섰다.

LH의 공동주택 용지가 이처럼 불타나게

팔리는 건 공공택지 공급이 워낙 많지 않은 데다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 수주마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다. 수주를 한다고 해도 사업장마다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갈등을 벌이는 사례가 잦고, 집값이 강세인 지역에선 이미 시공사를 정한 사업자들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새 시공사로 갈아타기가 일쑤다.

3기 신도시 공급 유탄에 미분양이 장기화될 것 같았던 양주 옥정지구 등 수도권 외곽 공동주택 용지들이 작년 초 모두 팔려나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공택지의 인기는 더 치솟았다. 상한제로 인해 민간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택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후 공급된 화성 동탄2지구는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고, 파주 운정3지구도 1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65필지, 총 307만㎡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78%(면적기준)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사업은 다른 민간사업 대비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 만큼 다른 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져 당분간 공공택지 확보 경쟁률은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8월 윤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월 윤곽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원주민 정착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해에만 47개 조합이 새로

출범해 총 111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엔 사업 시행 면적 한도를 1만 ㎡에서 2만 ㎡로 늘려주고 사업비·이주비 용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체 가구 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늘려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여당은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그동안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었는데”

피곤하고 힘들텐데도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었어요.

이젠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프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힘을 준 이 무름으로 또 한번 세상에 힘이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건네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지원상담·후원문의: 1661-6595 / www.ok6595.or.kr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사회적 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치과,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의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쌍용차 수입 부품 23억 과세 적법”

관세청 손 들어준 법원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했다”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까지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

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쌍용차에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쌍용차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ECU의 부속품인 PCB 어셈블리가 중간재에 해당하고 원산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료보관 기간이 지나 서울세관의 현지 검증이 위법하고 가산세 면제 사유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차의 주장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PCB 어셈블리가 역내까지 포함비율 계산에 반영되려면 생산자인 A 사가 이를 중간재로 지정하고, 싱가포르 관세청의 검사 절차를 거친 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A 사는 ECU의 부속품을 중간재로 지정하지 않고 싱가포르 관세청도 검증 절차 없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입장에서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따른 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협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스스로 원산지 기준을 RCV로 결정했고, 이에 기초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증명서를 발급한 바 사후적으로 결정 기준을 변경해 충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원산지 증명서의 RCV 기준의 근거가 된 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수제 마스크 기부 ‘온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한국소인디자이너 협회 사무실로 보내진 소인 디자이너, 시민 등이 기부한 수제 마스크들이 진열돼 있다. 이 마스크들은 대구에 기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 아동 격리 조치도 가능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해 아동 격리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 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는 등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 출동한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또한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등 동거 아동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 신청 주기 6개월로 연장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 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서울시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별 맞춤 저감사업 추진 6월 자치구 3곳 추가 지정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에 맞춤형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6월 자치구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 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 구역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노출 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서울시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지역(면적)	지역 특성
금천	두산로 및 법안로 일대(0.75km ²)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일대(1km ² 이내)	
동작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km ²)	공공장 인접한 분지 지역

이다.

금천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금천복지센터에 상호 부착형 환기시설(7개), 스마트 에어사워(1개), 에어커튼(4개), 식물벽(5개), 미세먼지 쉼터(1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상호 부착형 환기시설(7개), 스마트 에어사워(3개), 미세먼지 쉼터(1개), 미세먼지 알리미(17개) 등을 마련한다.

동작구의 경우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에 상호 부착형 환기시설(24곳), 대형공사장 IoT모니터링 시스템(2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살수차·분진흡입차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운영하고 집중관리구역 내 간이측정기 5대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 추가해 총 1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이를 위해 23일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셜록홈즈, 실크로드 타고 유럽 갔으면...”

인터뷰

뮤지컬배우 송용진

뮤지컬배우 송용진의 출연작을 살펴보면 ‘창작 뮤지컬’ 혹은 ‘국내 초연 배우’라는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창작과 초연은 ‘도전’을 의미한다. 창작 뮤지컬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캐릭터를 배우가 처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초연 역시 참고할 국내 모델이 없어 배우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송용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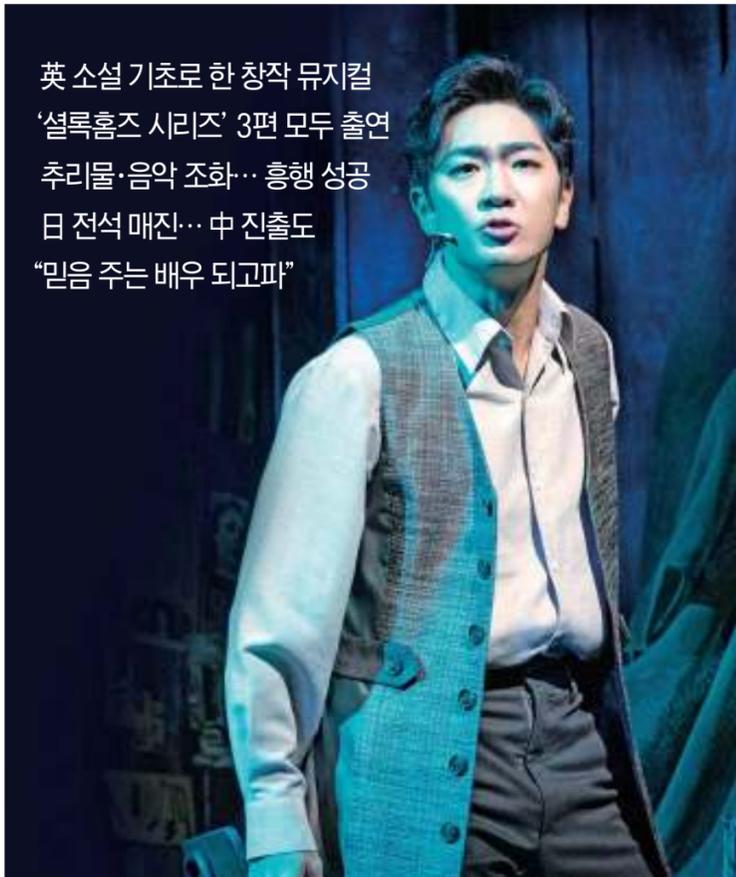
최근 서울 혜화동 인근 카페에서 만난 그는 뮤지컬 ‘셜록홈즈 : 사라진 아이들’ 개막으로 한창 바쁜 시기였다. ‘셜록홈즈’ 역시 국내 창작 뮤지컬이다. 영국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1859-1930)이 소설로 탄생시킨 명탐정 캐릭터 ‘셜록 홈즈’를 타이틀로 내세운다. 2011년 ‘앤더슨가의 비밀’과 2014년 ‘블러디 게임’을 공연했다. 송용진은 이번엔 ‘사라진 아이들’까지 모든 시리즈에 출연하게 됐다.

“‘셜록홈즈’를 뮤지컬로? 추리물과 음악이 어울리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죠. 미완성 대본만 주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본을 쭉 읽다 보니 제 촉을 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이 궁금해지고,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완성 대본이 아니었음에도 줄줄 읽혔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도전정신도 커졌죠.”

‘셜록홈즈’와 관련된 작품은 이미 수차례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 바 있다. ‘명탐정 셜록홈즈’ 하면 베네딕트 컴베라치가 떠오르는 것도, 홈즈는 영국인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생겼기 때문이다. 뮤지컬 ‘셜록홈즈’가 라이선스 뮤지컬이라고 으레 생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서 창작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물음표가 백만 개는 뜬 거 같아요. 흥길동을 영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흔한 시도는 아니

영 소설 기초로 한 창작 뮤지컬 ‘셜록홈즈 시리즈’ 3편 모두 출연 추리물·음악 조화... 흥행 성공
日 전석 매진... 中 진출도 “믿음 주는 배우 되고파”



뮤지컬배우 송용진이 지난달 20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열린 ‘셜록홈즈 : 사라진 아이들’ 프레스콜에서 홈즈 역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메이크프로덕션

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는데, 이성적인 추리물과 감성적인 음악이 만나는 순간 그림이 보였어요. 음악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음악의 힘을 느꼈습니다.”

창작 뮤지컬은 배우가 만드는 대로 길이 된다는 게 매력이다. 송용진은 그저 멋진 셜록홈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베네딕트 컴베라치가 아닌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셜록홈즈’의 홈즈가 그의 참고자료였다. 중후한 신사 같아 보이지만, 사건을 만나면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캐릭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영상에서 봤던 것들을 무대에

서 표출해야 해서 목소리 톤도 바꿔보고, 움직임도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때 만든 캐릭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초연 배우로서 뿌듯합니다.”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에 이어 시즌2 ‘셜록홈즈: 블러디게임’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오직 작품의 힘이었다. 일본 진출에도 성공했는데, 현지 관객들 사이의 입소문으로 전석 매진과 입석 관객도 등장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셜록홈즈’는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해외 진출 시도로 주목받았다.

“노우성 연출하고 초연 때 연습하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작품이 일본에도 갔고, 중국에도 라이선

스가 팔렸으니 중국에서도 공연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제 실크로드 타고 본고장인 유럽까지 갔으면 좋겠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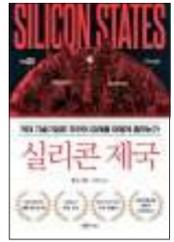
안타깝게도 ‘셜록홈즈’는 인터뷰 이후인 이달 8일 갑작스럽게 조기 폐막했다. 출연 중인 창작 뮤지컬 ‘사이닝’도 공연을 잠정 중단했고, 10주년을 맞이한 ‘마마, 돈 크라이’도 27일로 개막 일정을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해 내리진 결정들이다. (이후 송용진은 사랑하는 작품을 갑작스레 보내게 돼 아쉽다며 모두가 힘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송용진은 현재 유튜버, 영화감독, 밴드 보컬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는 영상 작업을 공부한다는 계획과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최근엔 단편영화 ‘감기’를 직접 만들어서 수정 중이며, 밴드 ‘쿠바’에 이어 ‘The FSM’이라는 인디밴드 활동까지 착실히 해내고 있다. 21년 차 배우로서 자신이 쌓아놓은 커리어만 편하게 누리기도 될 것 같은데, 작은 공연 출연도 마다치 않고 직접 제작까지 한다.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아요. 꿈이 없으면 제 삶도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적인 꿈을 꾸요. 다양한 분야가 궁금한 만큼 그런 것들을 채워갈 때 삶의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즐거워요. 배운 건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다 재산인 걸요.” 그는 ‘마마, 돈 크라이’의 드라마콜라 백작 역이 부럽고, 자신이 소화하는 프로페서V 역이 고되지만, ‘고조할아버지’ 허규에 이어 ‘증조할아버지’로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래도록 잘 해내고 싶어요. 이름값을 느낍니다. 책임감도 커졌어요. 배우 남경주’ 하면 생기는 믿음이 있듯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실리콘 제국
루시 그린 지음/ 이영진 역음/ 예문아카이브 펴냄/ 1만 8000원

정부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풍부한 자금, 인재, 야심으로 무장하고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흡수하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을 위시한 실리콘밸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서 부상한 스타트업과 그 문화, 자유로 대변되는 라이프스타일과 기술의 연계, 인터넷 시대에 따른 영향력의 증가, 그리고 이제는 산업을 넘어 소수 커뮤니티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개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헤세, 토마스 만 그리고 음악
이신구 지음/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1만7000원

문학 작품과 클래식 음악은 지적인 문화인이 알아야 할 최고의 교양이다. 교양 도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대문호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음악 형식과, 이 소설들 속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분석한다.

음악을 통해 토마스 만과 헤세 문학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의 사상과 독일 정신에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토마스 만이 언급한 것처럼 음악은 독일 정신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부는 ‘음악, 그 유일무이한 송고함이며’라는 제목으로 헤세 소설을 음악 형식으로 해설한다. 2부는 ‘음악, 그 비극적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만 소설을 음악 기법으로 풀어낸다.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신한카드의 3 초



초연결

초협력

초확장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드립니다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신한 PayFAN

MySHOP # Partner

My 송금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초연결

초협력

초확장

상품 서비스와 마케팅을 연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갑니다

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 금융을 선도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1223-Exn-001호(2019.12.23)

그룹 안성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코로나19 극복' 팔 걷은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 회장이 지난달 직접 제안
사내 대응책서 곧바로 추진
총 102개실 300개 침상 보유
市 요청 오면 즉시 사용 가능



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공을 제안한 경기도 안성 소재 그룹 연수원.

“그룹 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시한 아이디어다. 코로나19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달 지시했고, 그룹사 CEO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위원회'가 곧바로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그룹 연수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도 기관과 협의해 연수원 시설을 점검하는 등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긴급 수요에 대비해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그룹 연수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후 그룹사 CEO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추진했다. 코로나19 대응 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기업 연수원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마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연수원은 거주민이 많지 않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총 102개실 300개 침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이미 그룹 내 임직원들의 모든 집합연수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에서 연수원 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안성시에서 요청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10일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관계당국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

센터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금융지원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해 사회적 책임 완수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에 5억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이달 9일부터는 대구 지역거점병원 의료진 총 400명을 위해 건강식 수제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5일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소재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총 20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양홍석 제주클린산업 대표 상품성 낮은 감귤로 친환경 세척제 만들어

제주 감귤로 친환경 세척제를 만드는 양홍석 제주클린산업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양 대표는 제주 감귤로 친환경 세척제를 만들고, 한라봉과 천혜향 등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였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감귤에 포함된 구연산, 비타민 성분을 활용해 유아용 세탁제, 주방용 세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성이 낮아 판매가 어려운 감귤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뒀다.

감귤의 리모넨 성분을 계면활성제

로 활용한 제조특허도 획득했고, 비상품 감귤 활용으로 자원순환성 향상에 기여한 것이 인정돼 환경표지 인증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8억 원을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60%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기업의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한국타이어, 호주 럭비리그 후원 연장...1억명에 브랜드 노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사가 호주 '내셔널 럭비 리그(NRL)' 공식 후원을 2020 시즌까지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NRL은 세계적인 프리미어 럭비 리그이자 호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매년 300만 명 규모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은 1억여 명의 팬들이 TV를 통해 경기를 관람한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NRL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처음 맺은 뒤 호주·뉴질랜드 지역 및 전 세계 럭비 팬들에게 브랜드 마케팅을 선보여왔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한국타이어는 NRL 프리미어십 시리즈, 스테이트 오브 오리진 시리즈, 파이널 시리즈가 진행되는 경기장 전역에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스토리와 프리미어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릴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하나금융투자 등 4개사 "힘내라 대구" 5억 공동 기부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자산신탁, 현대건설, 도원개발 등과 함께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원을 공동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했다. 기부금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각 2억 원, 동산의료원에 1억 원이 전달된다. 현지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은 대구에 위치한 도원개발이 대표로 전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하나금융투자 외 3개사는 현재 대구의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 중이다. 자갈마당은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로 철거 후 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들어선다. 도원동 개발 사업은 지난해 '대구시정 베스트 10' 가운데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글로벌 큰손' 손정의, 트위터에 "행동 개시하겠다"

3년 만에 이를 연속 메시지 남겨
"코로나19 상황 걱정하고 있다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



손정의(孫正義·사진)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위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가 2017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올린 게시물이자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손 회장은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남겼다.

손 회장은 지금까지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소프트뱅크

나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망감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의 손 회장은 합리성이 높고, 강하며, 스피드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과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조 아르마니는 9일 코로나19 대응에 써 달라며 자국에 125만 유로(약 17억 원)를 기부했다.

홍콩에서도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리카싱(李嘉誠) 전 CK허치슨홀딩스 회장이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대응 작업에 1억 홍콩달러(약 153억 원)를 쾌척한 바 있다. 헨더슨(恒基兆), 뉴월드(新世界), 위프(九龍倉) 등 홍콩의 부동산 재벌들도 코로나19 대응에 각각 1000만 위안(약 17억 원)을 기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핀테크산업협회장에 류영준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신임 협회장에 류영준 카카오페이가 대표가 당선됐다.

11일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모바일 전자투표를 통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제3대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류영준 협회장 당선인은 1977년생으로 카카오 보이스트 개발팀장, 카카오 페이먼트사업부 본부장, 다음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 카카오 핀테크 사업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카카오페이를 이끌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e@

우리바이오 이송래 대표이사 선임

우리바이오가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해 전 동화약품 이송래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송래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한국화이자제약에 입사, 27년간 제약 영업, 신약 PM(Product Manager), 신약 개발팀장, 마케팅 총괄 이사, 영업 총괄 상무, 비즈니스 엑셀런스 전무를 역임하며 영업 사원에서 최고 경영진까지 경험한 제약 전문가이다. 이송래 대표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 kjm@

에셋플러스운용 양인찬 대표이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양인찬 전략사업부문 대표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11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양대표는 1999년 입사 이후 회사의 철학과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아울러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이날 정석훈 RT해외운용본부장을 등 기이사로 선임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바스프 반도체재료 사장에 리베르만

바스프는 1일 글로벌 디스퍼전 및 안료 사업 부문 산하 글로벌 전자 소재 사업부 반도체 재료 부문 사장에 엔스 리베르만 전 메탈 시스템 사업부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사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엔스 리베르만 사장은 수원 성균관대에 있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부음

"이념보다 휴머니즘" 소설가 현길언 씨

원로 소설가 현길언 전 한양대 교수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0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해 '용마의 꿈', '나의 집을 떠나



며' 등 소설집과 4·3 사건을 다룬 장편 '한라산' 등을 남겼다. 광복 이후 이어진 이념 대립의 상처를 휴머니즘을 통해 치유하려는 문학을 구현하고자 했다.

한양대와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다수 문학이론서와 인문문화 서적을 펴냈다. 대한민국문학상, 현대문학상, 녹색문학상, 백남학술상, 제주문학상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이고 발인은

13일 오전이다.

▲나장수 씨 별세, 나경옥(신한생명 신한세무금융지점장) 씨 부친상 = 10일, 고 대구로병원 장례식장 105호, 발인 12일 오전 9시, 02-857-1444

▲이계필 씨 별세, 동현수(㈜두산 부회장) 씨 장인상, 이용범(MA건축사무소) 씨 부친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2258-594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천영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병건 △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협력심판담당관 황윤환 △정보화담당관 박정용 △기업결합과장 이승규 △경제분석과장 황태호 △카르텔총괄과장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 박기홍 △지주

회사과장 이승규 △가맹거래조사팀장 이희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규 보임 △정책기획실장 홍성진
◆크레마 △각자대표이사 송경운
◆KBS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 CP 서용하
◆경향신문 △편집국장 안호기 △후마니타스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최병준
◆경인일보 △사장 배상록

자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배당수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역시 과거 금리 하락 구간에서 자주 확인됐던 현상이다.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대비를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중국 내 문제로 그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난 주말 전 세계 감염자 수는 1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3400명을 초과했다. 전 세계 91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 일각에선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상태로 진입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은 수요 측면에도 충격을 준다. IMF는 기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예측했지만, 최근에 지난 해(2.9%)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아직 한국에 대한 IMF의 전망치 수정은 없었지만, 신용평가사인 S&P는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1%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기존 2.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1.6%로 하향 조정했고, 이달 들어선 1.1%로 내렸다. 이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1%)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상장 기업 중에서도 수출 기업의 비중이 높다. 3월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되고 이익추정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익추정치는 지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현재 KOSPI200의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152조 원이다. 이는 2019년 영업이익(약 118조 원)보다 29% 가장 증가한 규모다. 한국 경제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2019년 실적은 2018년(182조 원)에 비해 35% 하락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20년 실적은 턱여라운드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준 충격이다. 아직 IMF에서조차 정확한 충격의 규모를 수치화해서 제공하지 못했지만, 투박하게나마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이렇다. ① 1분기 이익추정치가 30% 하향 조정되는 경우 ② 2분기 이익추정치까지 30% 하향 조정되는 경우 ③ 3분기 이익추정치가 30% 하향 조정되는 경우 세 가지를 가

정해보자. ①번의 경우 KOSPI200 영업이익 추정치는 141조 원 ②는 129조 원 ③번은 114조 원이다. 물론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0%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1분기보다 2분기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상반기 이익추정치가 30%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 실적은 2019년 대비 역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1월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최근의 변동성 확대는 두렵지만, 린치가 “깊은 시장 조정이 없었다면, 장기 투자자 대부분이 높은 수익률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다.

지난주 MSCI 이머징 지수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 지수는 1987년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머징 지역 성장주의

가치주 대비 강세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는 가치주가 좀 더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깬 현상이다. 여기에는 IT기업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진단이나 바이오 관련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다.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 관점은 유지한다. 하지만 상대지수 측면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가치주 역시 이제 비중을 조금은 늘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다만 가치주는 기존의 가치주 판단 기준인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SR(주가매출액비율), PCFR(주가현금흐름비율)가 아닌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배당수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역시 과거 금리 하락 구간에서 자주 확인됐던 현상이다.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대비를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달렸다.

CEO 칼럼

유희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한국제도전중소기업협회장



‘두 번은 없다.’ 우연히 보게 된 방송사 주말 드라마 제목이다. 실패와 상처를 딛고 재기를 꿈꾸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은 없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 드라마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돈을 빼앗아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 결국 실패한다는 드라마의 단골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성공은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작가 고어 비달의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해야 한다”는 명언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90%가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퍼펙트 스톰(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 위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적 재난은 취약계층부터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코로나19는 조만간 종식되었지만 재난 상황에서 당장 생계 걱정부터 해야 했던 비정규직, 일일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사채 시장으로까지 내몰렸을 막다른 구명에서 헤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취약해질 대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잠깐 연명했던 대출 기한이 다시 도래하면서 카드 돌려막기로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음을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재난의 경제적 후유증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이 늘 반복돼 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닷컴버블의 붕괴, 사스 위기, 키코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고, 중소기업들은 부도와 도산의 길로 내몰렸다. IMF 외환위기와 닷컴버블의 붕괴 때 망한 중소기업가들은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망해서 없어졌는데 회사의 대표로서 져야 했던 책임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희생, 파산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인 ‘채

무자 회생법’이 보증 채무의 부종성(빚이 없어질 때 보증 책임도 같이 없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산 절차에서 보증 채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4번이나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역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대표의 연대보증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담에 들 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정도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안전상의 문제가 전 사회 영역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건, 어떤 안전의 문제에도 상위 엘리트층, 기득권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약자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패는 약자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다. 약자의 실패를 딛고 기득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패는 개인의 게으름과 위기관리 부족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학교 휴교로 급식을 담당해 왔던 업체가 무기한 휴업하게 되어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된 미혼모, 다섯 살 된 아들이 감염될까 염려하면서도 데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데 공사가 중단돼 당장 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 막노동의 후유증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그에게 4대 보험의 혜택이 없다면. 낮에는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 운전기사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면업이라 푸드 트럭은 물론 대리 기사까지 관둘 수밖에 없게 된 청년 창업가. 코로나19로 자금 회전이 갑자기 막혀 중소기업 긴급 대출을 신청했지만 두달 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에 ‘망하고 난 뒤에 받으면 뭐하나’ 역장이 무너지는 한 중소기업 사장을 보면서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박열(朴烈) 명언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가 자네들 맘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 하겠는가.” 독립운동가.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일본 천황 암살을 실행하려던 직전에 발각되어 체포됐다. 재판 결과 사형선고를 받은 둘은 복역 중 결혼선고를 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녀는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는 8·15 광복으로 석방되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2~1974.

☆ 고사상어 / 남취(濫吹) 능력 없는 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랑함. 실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함을 비유한다. 한비자(韓非子)의 내지설상 칠술편(內儲說上 七術篇)이 원전.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우(婁)나라(魯)를 불게 할 때는 반드시 300명이 함께 불게 하였다[齊宣王使人吹竽必三百人] 남취처사(南郭處士)가 왕을 위하여 우를 불겠다고 청원하자 선왕이 기뻐하여 수백 명분의 녹봉을 주었다[南郭處士請爲王吹竽宣王說之 處士以數百人]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는 것을 듣기 좋아하자 처사는 도망쳤다.”

☆ 시사상식 / 꼬리위험(Tail Risk)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대개 자연현상은 특정한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을 이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일어날 확률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빈도가 정규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커져 꼬리가 굵어질 때 이 위험이 발생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으레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란 뜻의 부사. 이 말은 한자 의례(依例)에서 왔다.

☆ 유머 / 사람은 쉬이 안 바뀐다 바람기 많은 남편과 살던 부인이 견디다 못해 남편을 북극에 보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북극으로 달려갔다. 어렵소! 남편이 북극곰에게 마늘과 썩을 먹고 있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진산 금융부/jinsan@



CEO의 침묵과 결정권

했다. 사실상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사회가 내린 박 회장의 연봉 인상은 전년도에 이뤄진 제도개선과는 정반대의 결정이었다. 바뀐 제도는 박 회장을 상근 이사직에서 비상근 이사직으로 바꾸고, 중앙회장에게서 ‘신용공제운영권’과 ‘지도감

독권’을 떼어 버렸다. 경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자연스럽게 박 회장의 연봉도 내려가는 것이 바뀐 제도가 의도하는 바였다. 그런데 중앙회 이사회는 제도개선 의의에 귀를 닫고, 선출 권력에 충성했다. 그때의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당시 중앙회의 이사 중 한 명이었던 권광석 신용공제 대표가 우리은행장으로 내정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권 내정자는 중앙회의 초대 신용공제 대표이자, 상임이사로서 책임의 무게가 적지 않았다. 그런 권 내정자는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행장으로 선임되면 이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권 내정자가 우리금융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안을 25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 대한 CEO 징계안을 냈고, 이후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지난해 3월 박차훈 회장의 연봉을 50% 증액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과 상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무작정 내린 이사회의 의결은 그해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개선 조치를 받았고, 중앙회장의 연봉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행안부는 ‘2019년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박 회장 보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수 산정 근거 마련 등 내부 검토 과정 없이 이사회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회장 보수 결정 과정에서 중앙회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마약 달라”는 금융시장

“마약 사취”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휩쓸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등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연교(조여정 분)와 그의 남편인 박동익 사장(이선균 분)이 거실 쇼파에서 벌인 베드신 중 연교가 박 사장에게 건넨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과 전 세계 확산이라는 소위 팬데믹(pandemic) 우려로 미국 연준(Fed)은 3일(현지시간)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나 인하했다. 이 같은 전격적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8일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 금리인하 이후 더 혼탁해지는 분위기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등 뉴욕 3대 증시는 하루 새 8% 가까운 급락장에서 5%에 육박하는 급등장을 연출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0.56%대까지 추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던 미국채 10년물은 0.80% 선까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빅스)지수는 9일(현지시간) 54.46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20일(56.65)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혼돈은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확산한 데다, 세계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으로 불리는 소위 OPEC+(OPEC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스크칼럼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냉온탕을 오가는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번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다. 추가 완화카드를 내놓으라는 아우성이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0bp 더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후 추가로 양적완화(QE)까지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임에 연동해 주식과 채권, 환율 모두 급락세다. 9일 경우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4.19% 폭락해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8.4bp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11.9원(1.00%) 급등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역시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에 목을 매는 분위기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 서라도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 소식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출처 모를 괴소문까지 흥흥하다. 실제, 4일 예정이었던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 긴급 간부회

의가 열리고, 이 간부회의 결과 발표가 오전에서 오후로, 또 장 마감 후로 미뤄지면 서 소문은 당장 당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10일 아침에도 이 총재 주재 간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또 이 같은 기대감을 키웠다. 11일 또한 뜬금없이 12일로 예정된 기타 정기 금통위가 임시 금통위로 바뀌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으로서도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연준 스스로도 금리인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도 아니고 (경제) 공급사슬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밖 인하에 추가 인하 기대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미국이나 국내 채권금리 수준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도 남는 수준에 와 있다. 결국, 연준의 이번 긴급 인하를 두고 되레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이다. 한은 일부 금통위원들도 이번 연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로 지탱해 왔다. 유동성에 취하는 사이 국내 잠재성장률은 4%대에서 2%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시 영화 ‘기생충’. 부드럽게 시작된 연교와 박 사장의 베드신은 마약 사달라는 연교의 말 이후 격하게 돌변했다. 격동 이후 부부간에는 사랑이라도 남겠지만, 과연 금융시장엔 무엇이 남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때다.

kimnh21c@

사설

2월 취업자 늘었지만 앞으로 ‘고용절벽’ 불가피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9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도 66.3%로 198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겉으로는 고용이 많이 좋아진 수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고용사정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월 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초기(2월9~15일)에 이뤄져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장이 일부만 반영됐다. 그런데도 2월 일시휴직자가 61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2000명(29.8%) 늘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체의 휴업과 근로자 휴직 등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휴직자들도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힌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실직으로 이어져 취업자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어 2월 도소매업 취업자가 10만6000명이나 줄고, 음식·숙박업은 1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1월 8만6000명 증가에서 크게 쪼그라들었다. 반면 택배 수요가 급증, 운수·창고업이 9만9000명 늘었다. 재정 일자리사업 기여도가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만2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용구조도 질적 개선과 거리가 멀

다.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수 증가보다 훨씬 많은 57만 명 늘었고,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는 10만4000명 줄어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안정한 단기 근로 취업자가 56만2000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은 21만2000명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전반과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앞으로의 상황이다. 당장 3월부터 고용지표 추락이 예상된다. 국내 전파 확산으로 이미 경제가 크게 타격받고 있는 마당에,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는 국면은 치명적이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망 붕괴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 우려가 높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작년의 2.0%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 전망이 잇따른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1.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까지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떨어뜨리고, 취업자수를 30만 명 가까이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일자리를 늘려갈 수 없는 건 상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을 쏟아부어 고용을 떠받치는 데 간간히 힘을 써왔지만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이 비판적이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코로나19 이후 바뀔 세상

봇 1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CJ푸드빌의 빙스 등촌점에 클로이 셰프봇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음식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배달로봇 상용화에도 나섰다.

편의점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접촉) 서비스가 각광받자 무인점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CU는 최근 자사의 스마트 편의점 CU 바이셀프 100호점을 오픈했다. 이마트24도 현재 94개 스마트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유통의 온라인·모바일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을 때 e커머스(전자상거래)는 몰려드는 주문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쿠팡은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다. 11번가와 G마켓, 티몬 등도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할 전망이다. 재택근무 산업은 기본적으로 IT인프라 발전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 5G(5세대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산

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 진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의사와 환자들이 대면 노출을 줄이려는 요구가 커지면서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5G,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면접촉을 줄이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을 토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사무실 대신 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일하고, 이동 시에는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다. 식당에선 로봇이 서빙과 요리를 해주고, 물건 역시 온라인으로 주문해 로봇이 배송해 준다. 진료와 행정 서비스 역시 집에서 원격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위기’이지만, ‘기회’도 분명히 있다. 스마트홈, 자율주행, 로봇, AI 등 4차 산업 기술의 한 단계 진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술은 언젠가 나타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 줄지도 모른다.

syr@

건강100세 헬액투석환자 투석로 이상 발견되면

투석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를 관리할 때 투석로의 이상이 생기는 것을 미리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투석로의 위치와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따른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돼 환자 투석로의 전반적인 생존율 증가와 혈전에 의한 완전 폐쇄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번 혈전에 의해 폐쇄가 발생한 투석로의 경우 그 수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짧아지게 된다.

투석로의 폐쇄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투석로를 개통시키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폐쇄가 없는 상태에서 투석로의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폐쇄 시의 빈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투석실에서 보면 투석 중 환자의 정맥압 저항이 높거나, 동맥혈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이내 파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투석로 이상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천자가 잘못되었거나 환자의 혈압 변화 등의 문제로 생각해 투석로 협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착이 의심될 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폐쇄가 되고 나면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결과도 분명히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협착의 경우는 투석로 천자 후 유도철사로 협착 부위를 통과시키고 풍선 카테터를 삽입해 협착 부위를 확장시키는 경피적혈관성형술만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며 시술시간도 대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폐쇄의 경우는 투석로를 채우고 있는 혈전을 모두 녹이거나 제거하는 혈전제거술이나 혈전용해술이 추가되며 심할 경우 직접 투석로의 일부를 절개해 쥐어짜듯이 혈전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경우 환자도 힘들고 시술하는 의사도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커지고 투석로의 장기 개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석로의 이상은 투석 시도는 그 전후에 대부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투석로 주위나 중심정맥 협착을 의심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인터벤션 시술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박상우 건국대학교병원 팔다리혈관센터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삼성 식기세척기의 온도과학으로 오늘을 지키세요

오랜만에 아내와
요리솜씨 부린 날에도

삼성 식기세척기만의
안심온도 75도가 용기 손상 걱정없이
유해세균의 99.999%를 살균해
위생을 지켜주니까



삼성 식기세척기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

*5미크론사기준(BC-9390-01)으로 시험하였습니다. (표준코스+고온헹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자료.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량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을 99.999% 살균 세척